문화매일신문

경상북도성주교육지원청 Gyeongsangbukdo Seongju Office of Education

제1509호 2023 / 12 / 27 / Wed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 1899-9659

윤석열 대통령, 서울 소재 교회 찾아 성탄 예배 드리며, 아기 예수의 탄생 축하

윤석열 대통령은 성탄절인 12월 25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제일교회를 찾아 성탄 예배를 드리며,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했다. 대통령은 작년 성탄절에는 유년 시절 다녔던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 성탄 예배에 참석한 바 있다.

정동제일교회는 1885년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에 의해 설립돼 138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 최초의 개신교 교회로, 교회 내 벧엘예배당은 1977년 사적 제256호로 지정돼 있다.

대통령은 성탄 예배 시작 전 교회에 미리 도착해 천영태 담임목사 및 교회 성도들과 함께 성탄 축하 인사를 나누고, 1시간 가량 성탄 예배를 드렸다. 예배 중 담임목사는 대통령의 참석을 소개했고 이에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로 화답했다.

예배를 마친 대통령은 예배당을 나서며 교회 성도들과 일일이 악수했습니다. 한 어린이는 대통령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며 사탕을 건넸고, 셀카를 요청한 청년들과는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다. 예배에 참석한 한 어르신이 대통령에게 "응원한다"고 말을 건네자 대통령은 "국가가 좋은 선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대통령은 성탄 하루 전인 어제(12. 24, 일) 페이스북을 통해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면서 "오늘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희망의 불씨를 키워가는 많은 분들이 있다.

작은 불씨가 더 큰 사랑으로 타오를 수 있도록 저와 정부도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오늘 성탄 예배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최광수/기자

서울시, '강추위 속 쪽방촌에 온기를' 방한용품·연탄 등 후원 손길 이어져

서울 전역에 한파특보 발효가 연일 지속되는 가운데 쪽방촌에 기업과 단체, 종교계 등 사회 각계에서 따스한 온기를 전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 12월 이후 쪽방촌에 기업과 봉사단체·법인·종교계·모금회·공공기관 등이 ▲방한용품 2,484점 ▲연탄 약 4만 장 ▲등유 1.5만리터 ▲생필품 5,801점 ▲식료품 24,332점 등을 후원, 쪽방상담소를 통해 필요한 주민에게 전달됐다고 밝혔다.

12월 들어 22일 현재까지 방한용품(이불, 내의, 전기장판, 목도리, 핫팩 등), 연탄·유류, 의류, 생필품, 식료품 등 총 3억 8천여만원 상당의 물품과 기부금이 후원됐다.

지난달 말, 돈의동 쪽방촌에 개소한 '온기창고 2호점'도 사회 각계에서 들어오는 각종 후원으로 수시로 온기를 채우고 있다. 연일 이어지는 추위 속에서도 하루 평균 165명의 쪽방 주민이 찾고 있을 정도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토스뱅크에서 5천만 원 상당의 방한용품과 기부금으로 첫 후원을 시작한 이후 업체와 교회, 법인·단체 등에서 의류 200여벌, 식료품 1,320점 등 총 8천 400여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유치했다.

올해 8월부터 운영 중인 동자동 '온기창고 1호점'은 12월 하루 평균 300명이 이용 중이다.

한편 쪽방상담소는 겨울철 건강이 취약한 주민 153명을 대상으로 간호사 내방과 식사·밑반찬 배달 등 주민 돌봄 활동도 지속하고 있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사회 곳곳에서 보내주는 정성이 온기창고를 가득 메우고, 그 온기가 쪽방촌 구석구석 스며들고 있다"며 "한파에 취약한 쪽방 주민 보호를 위해 겨울철 특별보호대책에 만전을 기하는 등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최광수/기자

경북도, 디지털로 새로운 역사 만들어 간 1년의 성과

경상북도는 올해 1월 광역지자체 최초로 메타버스과학국 조직을 신설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 흐름에 경북도를 새롭게 디자인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이철우 도지사는 취임 이래 과학기술이 대한민국 수도권 블랙홀 해법임을 강조했다. 지자체로는 과감하면서도 획기적인 사업을 시도해 경북을 테스트베드로 만들었다.

2023년 1년간 경북도는 지역 혁신이라는 명제를 풀기 위해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밑그림을 그렸고 지방시대 첨단과학기술 성지로 도약하고자 각종 사업들을 펼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미래기술 선점'메타버스 수도 경북' 실현

메타버스는 디지털 기술의 최종 결정체다. AI, 빅데이터, 5G 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종합해 현실과 가상공간의 경계를 허문다.

2022년이'메타버스 수도 경북'선언 원년이라면 올해는 기술 선점의 기반을 다지는 해였다.

경북만의 특화사업으로 ▲전국 최초 메타버스 플랫폼 'GB메타포트'서비스 오픈(11.20) ▲전국 유일 도민 가상체험 '메타버스 XR체험존'운영 ▲6개 대학 협력 취업연계-인력양성 아카데미 등을 추진해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

현실과 가상공간이 뒤섞인 메타버스 가상 간부회의 개최(8.29)로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으며, 정부보다도 앞서 메타버스(가상융합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11.6)도 제정했다.

메타버스 분야 정부 공모사업에 ▲디지털 마이스터고 지정 ▲메타버스 어린이집, 경로당 사업 ▲메타버스 노마드 사업 ▲메타버스 랩 등 5개 사업이 선정됐으며, 내년도 과기부 예산 '메타버스 디지털 미디어 혁신 허브 구축'사업에 75억원을 반영시켰다.

정부 디지털 전략에 메타버스는 '경북'이라는 인식도 자리잡혀 앞으로 혁신특구 지정, 한류 전당 등 국책사업 확보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도정 전 분야 '디지털 대전환'첫걸음

디지털 전환은 경북과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과 발전에 빠질 수 없는 필수 요건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디지털을 놓치면 미래는 없다'는 철학으로 도정을 이끌어 가고 있다.

경북도는 처음으로 도정 전 분야 디지털 혁신전략을 담은'디지털 대전환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기본계획은 ▲기반 구축 ▲생태계 조성 ▲서비스 확산(산업, 문화, 안전, 농어산촌, 행정) ▲거버넌스 등 4개 전략, 112개 세부과제, 총사업비 5조 7,373억원 규모를 담았다.

도지사, 민간 공동위원장을 중심으로 산.학.연.관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디지털 전환 위원회도 출범해 사업의 계획부터 추진, 평가, 환류의 민간 주도 체계 시스템도 갖췄다.

또 광역지자체 최초 시.군 CCTV영상, 사물인터넷(IoT)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재난안전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토지리정보원, 경북경찰청과 협력으로 재난 시점 위성. 항공 영상을 핫라인으로 공유하는 시스템도 갖췄다.

올해 메타버스과학국은 국가공모에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선정 ▲뿌리산업 제조공정 DX기반 구축 ▲SW 중심대학 지원사업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등 총 37개 사업, 총사업비 2,669억원 규모에 국비 1,738억원을 확보했다.

디지털 경제의 핵심 '데이터 센터' 착공

영상, 쇼핑 등 각종 플랫폼 서비스 증가로 데이터센터 구축이 산업 전반에 확산 중이다. 현재 데이터센터는 수도권에 60%가 밀집되어 데이터의 안정성과 전력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 분산이 필요하다.

지난 10월 경북도청 신도시에는 1,100억원 규모의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경북형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건립 공사가 시작됐다. 2025년 상반기 중 완공되어 서비스를 개시한다.

9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8개 관계기관과 국제 해저 광케이블을 지상 통신망과 연결하는 '육양국 연계 글로벌 데이터센터 캠퍼스 조성(포항)'사업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4년 착공과 2026년 운영을 목표로 진행되며 민간투자는 1조 5천억원 규모다.

또 구미에 메타버스 데이터센터 건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 도내 권역별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가능케 하고 벤처기업 육성, 글로벌 빅테크기업 유치로도 이어져 경상북도 디지털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게 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메타버스 수도 경북' 건설과 도정 전 분야 '디지털 대전환'은 경북이 어려운 여건 속에도 반드시 걸어가야 할 여정"이라 강조하며, "20년 후 달라질 지방시대 희망찬 경북을 향해 오늘도 망설임 없이 한 걸음씩 걸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기도 배달특급 대표 지역 밀착 협의체, 유종의 미 거두며 종결식 개최

2023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광명시 서포터즈 종결식 진행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과 지역 주민이 협력하는 '배달특급 광명시 서포터즈'가 22일 종결식을 열고 유종의 미를 자축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22일 광명시 자영업지원센터에서 '2023년 배달특급 광명시 서포터즈 12월 간담회 겸 종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광명시 배달특급 서포터즈는 광명시와 경기도주식회사 관계자, 광명시 동 주민자치회 간사들이 모여 결성한 배달특급의 대표적인 지역 밀착형 홍보 마케팅 협의체다. 지난 2021년 12월 출범한 이후 광명시 내 다양한 행사 등에서 현장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배달특급 광명 서포터즈'는 올해 3월 광명시 10개 동에서 18개 동으로 확대 운영되면서 광명시 평생학습축제 등 굵직한 지역 행사 등에 활발히 참여하고 활동하여 배달특급 브랜드의 인지도 제고와 활성화에 선봉장이 됐다는 평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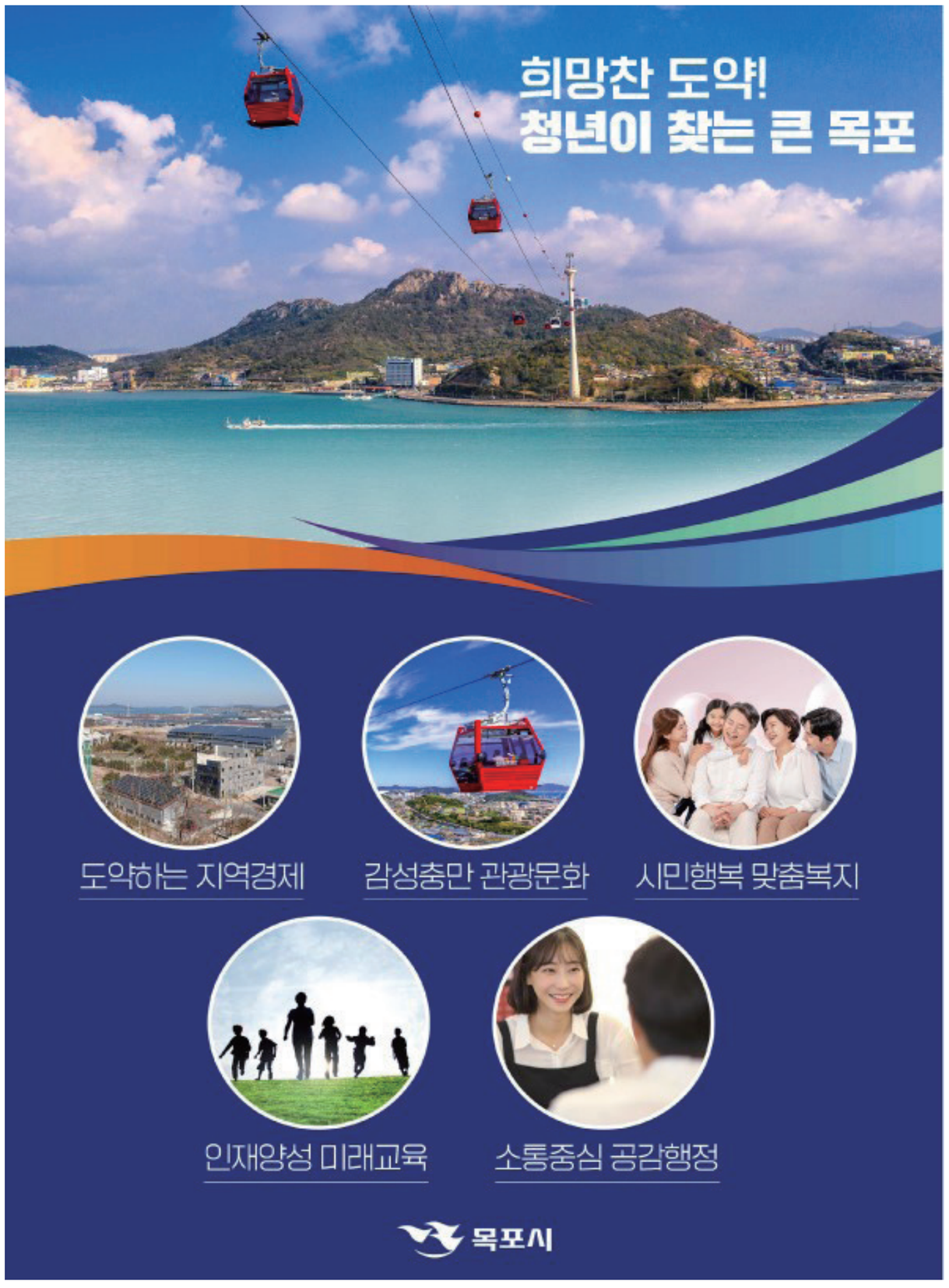
경기도주식회사 관계자는 "그간 서포터즈의 노력으로 배달특급 활성화가 많이 이뤄졌다.

내년에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자영업지원센터와 경기도주식회사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며, 배달특급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종결식에서 간사 대표로 나선 현윤숙 간사는 "배달특급이 앞으로 단점을 보완해서 배달앱 업계의 일인자로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주식회사는 내년에도 광명시를 지역 밀착 협의체의 모범으로 삼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배달특급 활성화를 위해 타 지역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밀착 서포터즈 운영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김범상/기자



경북도의회 2025 APEC정상회의 경상북도유치특별위원회 간담회 개최

APEC 정상회의"경주 유치"본격적 지원 나서!

경상북도의회 '2025 APEC 정상회의 경상북도유치 특별위원회'는 제343회 정례회 기간인 12월 20일 간담회를 개최해 정상회의 경주유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을 보고 받고도 차원의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물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는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의 당위성과 홍보 전략, 특별위원회의 타시도 대상 유치활동 계획을 논의하는 등 구체적인 경주 유치 전략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이날 APEC 정상회의 관련 홍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예비비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유치의 열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현수막 부착,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 TV 홍보 송출, 지하철역 및 백화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대한 홍보, 시장군수협의회 협조 등 공격적인 전방위적 홍보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22개 시군 공무원 통화 착신음에 APEC 정상회의 유치 홍보음 설치 협조 요청 및 지자체 주요 행사시 경주 유치 언급 등 경북이 하나로 뭉쳐 경주 유치에 추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제안했다.

홍보 기념품도 통상적인 기념품이 아니라, 경주를 대표하고 상징할 수 있는 상품 제작이 필요하다며 천년 미소를 예로 들어 경주에 특화된 홍보기념품 제작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내년 초부터 2025 APEC 정상회의 경상북도유치 특별위원회는 전국의 주요 광역단체와 광역의회에 경주 유치 지지를 청하고, 정부와 국회 등 정치권에도 도움을 요청하는 등 대국민 홍보활동 방안도 논의했다.

배진석 APEC 특위 위원장은 "국내외 지역을 대상으로 APEC 정상회의 유치 운동 참여 등 활동을 적극 지원해 경주가 반드시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로 선정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정책적 지원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PEC 정상회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성장과 번영을 목표로 구성된 21개국 정상들의 협의체다. 우리나라는 1991년 서울, 2005년 부산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경상북도 경주는 APEC 교육 장관회의(2012년), 제7차 세계물포럼(2015년) 등 다양한 국제행사를 치른 경험과 편리한 접근성을 앞세워 2025년 회의유치에 도전한다.

2021년 7월 유치 도전장을 낸 경주는 인천과 제주, 부산 등과 함께 내년 상반기 정부의 개최지 결정을 두고 경쟁하고 있다. 경주가 유치에 성공하면 경북 도내 생산 유발 9천720억원, 부가가치 4천654억원의 성과가 기대된다.

윤근수/기자

울산광역시의회, 2023년 상임위원회 주요성과

시민 삶의 질 향상 최우선...민생의회 주춧돌 놓아

울산시의회는 2023년 한해 오직 시민을 바라보며 민생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올해에도 정책의회, 소통의회 실현에 역점을 두고 민생현안을 챙기기 위해 상임위원회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지난 1년간 정례회 2회와 임시회 5회, 총 120일간의 회기 일정을 소화하면서 조례안 205건, 예산안 16건 등 총 31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5분 자유발언 22건, 서면질문 122건 등 144건에 달하는 질의·건의를 통해 지역 현안에 기민하게 대응했다.

김기환 의장은 "올해는 정책의회 주춧돌을 놓기 위해 현장밀착형 의정활동을 속도감 있게 펼쳐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열심히 일했다"며 "내년에도 울산과 시민을 위해 혼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황규진/기자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 의정보고회 개최

부산광역시의회 서지연 의원이 오늘 12월 22일 오후 4시 30분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모두를 위한 부산의 오늘과 내일 2023의정보고회'라는 타이틀로 개최되는 이번 의정보고회는 47명 중 단 2명의 야당 의원 중 한 명으로서 부산시 의정활동 성과를 공유하는 공식 자리다.

지난 지방 선거 이후의 활동과 올해 의정활동 성과를 포함해 앞으로의 부산, 부산 시민을 위한 정치활동에 대한 소회와 비전을 밝힐 예정이다.

서지연 의원은 이번 의정보고회를 통해 부산시 비례대표로서 시정 견제와 부산시 현안 해결을 위해 추진해 온 사업의 성과, 조례 입법과 예산, 행정감사 등 부산시의회와 지역에서의 중도층 청년과 전문가와의 활발한 교류, 의원 외교 등의 특색있는 의정활동을 소개하게 된다.

서지연 부산시의원은 지난 6월1일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오디션을 통해 선발 되어 비례대표 1번으로 입성했다.

초선으로서 보기 드문 예리함과 논리를 바탕으로 4차산업 및 미래산업으로 시민의 눈을 가리고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지방행정을 견제하고 암 치료 이후의 삶을 관리하는 애프터케어, 범죄 피해자 애프터케어, 전세사기 피해자 애프터케어 등 사회적으로 필요한 복지 정책에 대해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왔다.

동시에 활발한 대외 활동을 통해 미국, 일본, 덴마크 등 9개국 간 외교도 펼쳤다.

또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동백패스 산출 근거 및 운영 지적, MaaS 도입을 포함해 부산의 건설과 교통에 대한 분야에도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문제점 지적과 제안을 병행해 시민과 공무원들 사이에서 탁월한 의정활동 능력을 인정받아왔다.

또한 취임 후 17개월 간 시정을 견제하는 9회의 5분 발언과 3회의 시정질문, 반대토론까지 진행하며 견제와 균형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친 결과 부산시민모니터링단 우수의정대상, 제13회 우수의정대상, 지방의회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젊은 암 환자 및 신부전증 환자들이 항암 및 신장 투석 전 가임력을 보존받을 수 있는 조례와 사업을 마련해 더불어민주당 전국 광역의원 우수조례와 제15회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조례부문 최우수상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서지연 의원은 의정보고회에서 부산시민에게 이러한 의정활동 내용을 영상과 보고의 형식으로 전달한 뒤 시민들과 소통을 통해 내년을 계획하는 시간도 가지게 된다.

서지연 의원은 "부산시의원으로 1년을 가득 보낸 첫 해인 만큼 부산시민들과 소통하는 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번 의정보고회를 통해 제가 사랑하는 도시 부산의 잠재력과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시대에 맞게 제대로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한 활동을 보고 드리고자 한다. 그리고 부산시민들께서 지역 정치에 대한 기대감과 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의 계획도 상세히 보고드릴 것이다." 더하여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은 없이 기득권 유지만을 위한 정쟁, 일이 아닌 말만 하는 정치, 시대의 흐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따라잡지 못하는 정책이나 섬세한 감수성이 부재한 정책을 개선하고 바꾸는 부산의 기대되는 사랑받는 정치인이 되겠다."며 다짐을 전했다.

김희태/기자

포항시의회, 제311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제4차 본회의서 안건 의결 후 2023년도 의정활동 마무리

예천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2일, '2023 농촌진흥사업 우수기관 도 종합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해 농업·농촌 발전과 혁신에 기여한 업적을 인정받았다.

경상북도농업기술원에서 열린 농업 연구성과 공유대회는 농촌진흥사업 발전과 성과 향상을 위해 한 해 동안 이룩한 성과에 대한 평가를 위해 마련됐다.

예천군은 경북 22개 시군 중 농촌지도사업 혁신전략 추진실적 등 9개 지표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둬 '대상'을 수상하면서 2019년부터 5년 연속 중앙 및 도단위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성백경 소장은 "직원들이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한 결과 5년 연속 큰 상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시기에 맞는 교육과 사업을 제공해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전남도의회,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 수상

광역의회 부문 최우수 의정단체 선정 영예

전라남도의회가 22일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주최한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에서 광역의회 부문 최우수 의정단체상을 수상했다.

여의도정책연구원에서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의회의 효율적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매년 우수 의정단체와 의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 활성화, 삶의 질 향상, 경쟁력 있는 지역 발전 시책 발굴 등의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한다.

전남도의회는 도민의 30년 숙원인 전남권 의대 설립을 위한 적극적 대외활동을 비롯해 지방소멸 극복과 농어가 경영안정, 민생경제 회복 등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 활동을 펼쳐왔다.

건·결의안을 통해 시의적 이슈에 즉각 대응하며 도민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는 한편, 토론회, 간담회 등 소통의정을 기반으로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앞장서 온 점을 높이 평가 받아 최우수 의정단체에 선정됐다.

서동욱 의장은 "제12대 전남도의회는 주민 대의기관인 의회 본연의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신뢰받는 의정으로 도민의 삶에 힘이 되는 의회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수상은 그러한 도의회 노력을 반영한 결과인 듯해 뿌듯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에도 전남권 의대 설립 확정, 지방소멸 극복, 민생경제 회복 등 지속 추진해 나가야 할 현안 해결을 위해 의정활동에 더 전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전남도의회에 많은 성원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날 시상식은 김태균 부의장이 참석해 대리 수상했다. 전남도의회에서는 김태균 부의장을 비롯한 이철·박종원·신의준 의원 등 4명이 광역의회 의원 대상 수상자로, 차영수 의원을 비롯한 박현숙·강문성·신승철·임형석·최무경·박원종 의원 등 7명이 광역의회 의원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박종배/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 :최재은. 부회장: 임석경 청소년책임보호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제호 : 문화매일신문
등록번호 : 서울 가 50146 | 등록일 :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광고국:1899.9659

정 치 부:내선 (112) 문 화 부 :내선 (116)
사 회 부:내선 (113) 부동산부 :내선 (117)
경 제 부:내선 (114) 오피니언부 :내선 (118)
스포츠부:내선 (115) 지 방 부 :내선 (119)

서울특별시 개봉로 12길 9-19 로얄홈타운 102동 202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화폐·GTX 사업 등 국비18조 5,638억원 확보.역대최대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역화폐 발행 지원 등 50개 사업 1,061억 원 추가 확보

경기도가 2024년도 예산으로 국비 18조 5,638억 원을 확보했다. 올해 17조 8,110억 원보다 7,528억 원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파주~삼성~동탄) 사업 1,805억 원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399억 원 확보로 내년 경기도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전액 삭감됐던 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 80억 원(전국)과 지역화폐 예산 3천억 원(전국)도 증액돼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도 정부예산 수정안을 분석한 결과, 18조 5,638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서민·사회적 약자 등을 지원하는 복지 분야 예산은 경기도 인구 증가와 정부 약자복지 강화의 영향으로 2023년 11조 6,912억 원에서 1조 2,996억 원 증가해 약 13조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대표적인 사업에는 ▲기초연금 3조 7,818억 원 ▲영유아 보육료·부모급여 1조 8,548억 원 ▲생계급여 1조 3,473억 원 등이 있다.

사회간접자본(SOC)·교통 분야의 경우 전년 확보액 3조 8,093억 원 대비 다소 줄어든 금액인 3조 5,136억 원을 확보했으나 기존 사업의 준공과 공정률 등에 따라 일부 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사업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파주-삼성-동탄) 1,805억 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399억 원 ▲수도권 제2순환(김포-파주-포천) 고속도로 2,707억 원 ▲평택~부여(서부 내륙) 민자고속도로 5,902억 원 등이 있다.

2024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기까지 경기도는 올해 2~3월부터 국비 확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국비사업을 선정·발굴해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요청했다. 6월에는 경기지역 국회의원 보좌관을 대상으로 주요 국비사업 설명회를, 7월 국민의힘-경기·인천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진 데 이어 김동연 지사가 직접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찾아 국비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8월에는 김동연 지사와 국회 예결위원회 간 예산협의 간담회를 열었고, 9월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10월 중앙협력본부 내 국비확보 대응 상황실을 개소한 데 이어 국정감사 때 경기도를 찾은 의원 가운데 예결위원이기도 한 경기도 의원들과 소통하며 도가 제출한 국비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나누기도 했다. 11월에는 오병권 행정1부지사와 염태영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등이 잇따라 국회를 찾은 데 이어 12월 김동연 지사가 또 다시 국회를 찾아 서삼석 국회 예결위원장에게 주요 국비 사업에 대한 지원을 당부하는 등 다양한 국비확보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당초 정부 예산안에 담긴 18조 4,577억 원 대비 1,061억 원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했다.

증액된 1,061억 원은 50여개 사업 예산으로 ▲광역버스 준공영제 168억 원 ▲김포 도시철도 전동차 증차 한시 지원 46억 원 ▲수원발 KTX 직결사업 10억 원 등 사회간접자본(SOC)·교통 분야에 315억 원 ▲정부의 R&D분야 예산축소로 감액된 열린혁신 디지털 오픈랩 구축 10억 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15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25억 원 등이다.

이희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 발전을 위해 국비 확보에 힘쓴 경기도 국회의원들의 노력에 힘입어 역대 최대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며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적재적소에 신속 집행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 경기도 북부 지역 광역교통 및 교통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경기도 북부 지역 및 고양시 교통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부위원장(국민의힘, 고양7)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북부 지역 광역교통 및 교통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2월 22일 킨텍스 제2전시장 408호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경기도 북부지역의 광역교통 및 교통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구동균 경기연구원 모빌리티연구실 연구위원은 "경기도민의 출퇴근 현황과 통행 패턴을 분석하고, 경기도 북부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인 고양시의 교통현황을 버스 유형별로 살펴보고, 고양시의 광역 교통개선대책 현황과 경기도민 및 고양시민을 위한 교통개선방안으로 타겟형 광역버스노선 확대, 마을버스를 중심으로 지하철과의 연계와 운영 효율화, 버스전용차로 확대의 보조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은 "서울 등지로 출퇴근 하는 인구비율이 높은 고양시의 교통현황을 분석해보니, 연계교통이 현저히 불편한 수도권 최하의 광역 교통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며, "GTX 시대에 대비하여 연계를 중심으로한 대중교통의 전면적인 개편"을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조성연 경기도 버스정책과 광역버스팀장은 전반적인 경기도 버스정책 현황과 고양시 버스 준공영제 실시에 대해 설명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김종구 고양시 버스정책과장은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 즉각 대응 가능한 버스의 지원 대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설명했다. "또한 버스 준공영제 시행, 주도적인 환승센터 구축을 통해 광역교통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해야 하며, 지하도로 확보시 상부 도로의 버스전용차로 설치 등으로 교통 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이호원 경기도 마을버스운송조합 전무는 "버스전용차로의 확대를 통해 마을버스의 신속한 연결을 통하여 지역적 소규모 이동거점을 활성화하여 대규모 중심 거점으로의 더욱 정확하고 신속한 연결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이상원 부위원장은 "고양시 교통망 관련, 식사동-풍동-중산동 등의 지역은 교통섬이라고 불릴만큼 고양시 내에서 다른 지역 주민분들과 같이 세금을 납부함에도 교통망이 전혀 없어 매우 불합리한 상황이며, 이를 비롯한 고양시 교통 개선이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경기 북부지역 및 고양시 교통 개선을 위해 경기도의회, 경기도, 고양시 및 지역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민주, 부천1), 안계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국힘, 성남7)이 영상축사를 했다.

또한 곽미숙 도의원(국힘, 고양6), 이택수 도의원(국힘, 고양8), 김성수 도의원(국힘, 하남2), 박순자 경기도 소통협치관, 김영식 고양특례시 의장, 엄성은 고양특례시 의원, 고덕희 고양특례시 의원 등이 참석하여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김범상/기자

오준환 경기도의회 국힘 정책위원장, 대한민국환경ESG공헌대상 수상

오 의원, "살기 좋은 경기도, 살고 싶은 고양특례시가 되도록 환경보전 활동 매진하겠다"

오준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장(국민의힘, 고양9)이 1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환경ESG공헌대상' 시상식에서 도정활동 우수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오준환 의원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이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도내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및 하천수질 개선 등을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였으며, 지역구인 고양시에서 환경보호 캠페인과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환경보호 인식 개선에 앞장섰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오 의원은 5분자유발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고양시 식사지구에 新 교통수단인 트램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강력히 피력해 왔다. 트램은 전기나 수소 에너지를 동력으로 사용해 소음과 매연 배출을 최소화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국토부는 지난 2020년 말 고양 창릉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식사역과 고양시청, 대곡역을 잇는 식사트램 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환경운동가들과 함께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위치한 한류천(수변공원)의 수질 개선 운동을 펼쳐오며 생태하천 복원과 도시재생으로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권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어 영농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해 탄소중립에 이바지하고자 '경기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를 공동발의했으며, '경기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지원 조례' 및 '경기도 사이버식물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개정의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는 등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를 위한 법안 마련에도 힘써 왔다.

오 의원은 "이상기후와 환경오염으로 자연과 환경 보존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지금, 경기도민과 고양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가 인정받은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살기 좋은 경기도, 살고 싶은 고양특례시가 되도록 환경보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환경ESG공헌대상은 사단법인 환경보전대응본부가 탄소중립 2050의 현실에 맞추어 탄소를 줄이는 데 앞장서고 환경보전과 자연환경 개선에 모범을 보여온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해 환경의 중요성 및 위상을 고취시키고자 수여하는 상이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 '2023년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수상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2월 2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3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위원회 시상식'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경기도의회 주최로 개최된 이날 행사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비전을 실현하는데 기여한 업적에 대하여 시상하고자 마련됐다.

양우식 의원은 지난 11월 23일 대변인실,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중앙협력본부 등을 대상으로 열린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기관의 정책 추진과 예산 집행의 문제점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양우식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당일이었던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추모 추진, 민간협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국비 보조 관련 중앙협력본부 서울사무소의 역할 강화 등의 문제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이 밖에 양우식 의원은 '경기북부·남부 상생을 위한 정책 포럼' 연구단체를 설립하여 경기북부 · 남부지역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적 상생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경기도의회 운영 선진화 및 관련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혁신추진단 공동단장으로 의회 선진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양우식 의원은 시상식에서 "뜻깊은 상을 주셔서 감사할 따름"이라며 "보다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경기도의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김범상/기자

수원시, 기업과 함께 만드는 '성장' 지속가능한 미래 '성큼'

2023년 수원특례시의 시정 성과는 혁신과 즐거움을 넘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노력의 결과물로 드러난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근간이 되는 기업을 유치하고, 유치 기업과 기존 기업들이 모두 수원에 든든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들을 마련했다. 또 도심에서 누릴 수 있는 작은 여유공간을 만들고, 오래된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찾아내 실행함으로써 시민들이 더 나은 내일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첨단기업 유치 및 맞춤형 지원으로 미래 성장 동력 마련

지역경제 활성화의 근간이 될 기업 유치를 최대 목표로 내세웠던 수원시는 2023년 한 해 동안 4개 기업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인공지능, 반도체, 정밀부품, 바이오 등 첨단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들이 수원에서 미래를 그리고 있는 것이다. 올해 첫 협약으로 지난 3월 국내 최대 AI 보안 관제 솔루션 기업인 '포커스에이치엔에스'가 수원으로 본사를 이전하기로 약속했고, 4월 글로벌 반도체 종합솔루션기업 '인테그리스'는 반도체 소재 연구소 투자를 위해 수원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 국내 최대 규모 초정밀 커넥터 제조 기업 '우주일렉트로닉스'는 지난 7월 본사와 연구소를 수원으로 이전하는 협약을 맺었다. 우주일렉트로닉스는 협약 5개월여만인 지난 12월15일 광교사무소를 개소해 100여명의 연구개발 및 지원인력을 이전하는 가시적인 성과도 만들어냈다. 이어 지난 20일에는 민선8기 5호이자 2023년 네 번째 기업투자 유치 소식을 알렸다. 바이오 콘텐츠와 동물용 진단 제품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바이오노트가 주요 업무시설 및 연구센터를 수원에 신설·이전해 수원의 바이오 산업 육성에 함께할 예정이다.

수원에 이전 및 투자를 결정한 기업과 투자유치 기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명문화해 기업투자 유치의 활성화를 꾀하기도 했다. '수원시 기업유치 촉진 및 투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두 차례 다듬어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기반을 다졌다. 먼저 지난해 12월30일 공포한 개정안은 50억원 이상 추가 투자하는 관내 기업 또는 10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관외 기업 등으로 보조금 대상을 명시하고, 보조금 규모(토지배입비·건축비·건물취득비는 최고 5억원, 임대료는 최고 3억원)도 확대했다. 이어 지난 7월12일에는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위원 선정기준을 구체화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민간과 공공 모두 활발히 기업투자 유치 노력을 이어가도록 독려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수원에서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키워내고자 야심차게 준비한 '수원기업새빛펀드'도 출시 준비를 마쳤다.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했던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수원시 출자금 100억원을 기반으로 조성하는 펀드다. 12월 말 기준 총 5개 분야 펀드를 조성해 각각의 전문 운용사를 선정하고 펀드별 조합이 결성되는 마무리 단계다. 특히 수원기업새빛펀드 결성액은 2천588억원을 달성, 당초 목표 1천억원의 2.5배가 넘게 몸집이 불었다. 분야별 투자 규모는 창업초기(라구나인베스트먼트) 500억원, 소재부품장비(코오롱인베스트먼트) 730억원, 바이오헬스(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 338억원, 4차산업혁명 및 디지털(아주IB투자) 600억원, 재도약(퓨처플레이) 420억원 등이다. 수원 기업에 500억원 이상이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만큼 수원시와 기업 정책 성공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감을 높인다.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존 기업들을 위해 포괄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했다. 지난 10월11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수원시 중소기업 동행지원' 사업이다. 수원시가 금융기관(기업은행) 및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경기신용보증재단)과의 공동 협약을 통해 자금지원과 보증을 연계 지원해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간소화했다. 연간 1천억원씩 3년간 총 3천억원 규모로 대출이 지원되며, 기업당 최대 5억원까지 2%의 이자와 1.2%의 보증료율을 감면받을 수 있다. 제조업 등 업종 제한이 있던 지원자격 역시 대폭 확대해 본사나 사업장이 수원에 소재한 중소기업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문턱을 낮췄다. 동행지원은 출시 이후 2달 동안 62개사가 185억원을 접수해 호응을 얻으며 중소기업 자금 가뭄에 단비 역할을 하게 됐다.

◇지속가능 도시를 위한 혁신환경 조성

8년여간의 준비 끝에 올해 5월 정식 개원한 일월수목원과 영흥수목원은 수원시민들이 가까운 일상에서 즐기는 도심형 수목원으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10만1천500㎡ 면적에 2016종 5만2천여주 42만9천여본의 식물을 보유한 일월수목원에는 12월15일까지 7개월간 29만여명이, 14만6천㎡ 면적에 1천84종 4만2천여주 11만8천여본의 식물을 보유한 영흥수목원에는 19만9천여명이 방문했다. 연말께 방문객 50만명 달성이 가시적이다. 연간 또는 평생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도 1천887명에 달해 그린라이프를 즐기는 시민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국립세종수목원과 미국 피닉스시 등 국내외 주요 기관과 단체 97곳이 방문했고, 시민들과 기관에서 24건의 기부가 이어져 기부정원도 조성됐다. 이에 더해 수원수목원은 방문자센터 등 공간을 활용한 음악회가 열리고,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주제정원도 조성하고, 관계기관 협업전시 등 식물을 매개로 한 문화공간 역할도 했다. 특히 여름철 야간 개원과 시민의 날 무료 개방 등 시민과 함께하는 공공 수목원으로 자리를 잡았다.

마을공터, 자투리땅, 공동주택 단지 사이 관리가 모호한 공간 등 도심 곳곳을 녹화한 손바닥정원 확산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수원 어디서든 5분마다 작은 정원을 만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다. 수원시는 가드닝의 날, 정원특강 등을 열어 시민들이 정원 만들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공원녹지사업소 내에 '도구지원센터'를 만들어 호미와 전지가위 등 220개의 도구를 비치해 누구나 빌려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시민들이 중심이 돼 구성된 새빛수원 손바닥정원단 850명의 단원들이 계획부터 조성과 관리에 힘을 모아 1년 동안 300개의 손바닥정원을 만들었다. 또 손바닥정원 우수사례를 뽑는 콘테스트도 진행해 올해 12개의 정원을 우수작으로 선정했다. 길가에 버려졌던 유휴지가 힐링 공간(영통3동 꽃정원)이 되고, 공공주차장 옆 흡연공간으로 쓰이던 자투리 땅이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율천동 응원쉼표정원)이 되고, 개인 정원을 마을과 공유하며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행궁언덕마을 누구나정원)으로 활용하는 변화를 만들어냈다.

구도심의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 환경을 개선하는 집수리 지원사업도 활발히 진행하며 성과를 올렸다.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시민들의 불편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에너지 효율을 높여 탄소중립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갔다. 수원시는 지난 4월 저층 주거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집수리 선정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집수리 사업에 박차를 가했다. 수원형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은 방수공사, 단열공사, 창호공사, 외벽공사 등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부터 담장과 대문 등 경관개선, 침수와 화재로부터 집을 보호하는 재해방지시설 설치와 피해가구 복구 등 광범위한 집수리를 지원한다. 공사 범위에 따라 300만~2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첫해인 올해 사업 대상 중 제1호 주택이 대문과 담장을 교체하고 옥상방수를 완료한 지난 10월 이후 단독주택 60호 공동주택 144호 등 204호가 집수리를 지원받았다. 상습 침수구역 차수판 설치 등 수원시의 직접시행 사업까지 101호가 공사를 진행 중이어서 노후주택 개선 효과가 톡톡하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공공 지원 방안도 체계화해 수원지역 8개 단지의 사업 진행에 도움을 주고 있다. 1990년대 후반 준공된 영통지구 공동주택 6개 단지와 권선1지구 1개 단지, 1980년대 후반 완공된 매탄2지구 1개 단지 등을 대상으로 사전검토제와 통합심의를 지원했다. 리모델링 사업 추진 과정에서 8~10개에 달하는 연관 부서와 각각 진행하며 기간이 늘어질 수밖에 없던 협의를 한 번에 검토하고, 건축심의와 경관심의 및 교통심의를 통합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덕분에 해당 단지들은 수원시의 지원으로 각종 심의까지 2년가량 걸리던 행정절차 소요 기간을 절반으로 축소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3개 단지를 선정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공공 지원을 통해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5호 기업을 유치까지 달려온 과정을 발판 삼아 더 많은 기업을 수원에 모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쉼 없이 뛰겠다"며 "도시의 발전과 더불어 시민의 삶이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화성시 '논스톱 급수공사 시행'으로 시민 불편 최소화 총력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동절기 기간 '논스톱 급수공사 시행'

화성시가 동절기 논스톱 급수공사 시행을 통해 시민 불편 최소화에 나선다.

급수공사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에서 수도관을 분기하고 대지 내에 수도계량기를 설치하는 공사로, 대부분의 지자체가 동절기 일정기간 동안 급수공사 신청을 제한하고 공사 시행을 중지하고 있다.

시는 동절기 급수공사 제한으로 인한 건축물 미준공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증가, 준공 목적 지하수 개발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겨울철 평균기온이 상승 추세인 점을 고려해 금년부터는 동절기에도 급수공사를 시행한다.

특히, 기온상황과 무관한 수전분리 공사는 별도 제한 없이 시행하고 도로포장이 동반되는 급수공사의 경우 일평균 기온이 5℃ 이상 되는 경우에 한해 탄력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겨울철 한파로부터 상수도시설 동파사고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신속한 긴급 복구를 위해, 지난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상수도시설 동파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계량기의 동파 예방을 위해 수도계량기 사전점검 및 보온재 교체 등을 실시하고, 동파 방지 방법과 동파 발생 시 신고 방법에 대한 리플렛 배부, 현수막 게첨 등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탄력적인 급수공사를 통해 겨울철 급수가 필요한 수용가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겨울철 상수도 동파사고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상수도시설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양시현/기자

안양시, 주민참여예산 평가회 개최…내년 주민참여예산 52.5억 확정

비봉산 세심천 쉼터시설 개선 등 우수사례 공유

안양시는 지난 20일 안양시청 3층 상황실에서 '2023년 주민참여예산 평가회'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시의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은 52억5402만원(36건)으로 확정됐다. 안양시는 주민참여예산을 처음 시행한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총 853건의 주민제안사업을 예산에 편성했다.

이날 평가회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지역회의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유공 표창 ▲올해 주민참여예산제 성과보고 ▲비산1동의 우수사례 공유 ▲6개 분과위원회의 활동 사례 발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 토론 등이 진행됐다.

우수사례로 소개된 비산1동은 올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비봉산 세심천 쉼터 시설 개선, 밝은 거리환경 조성, 비산1동 지역안내판 제작 등을 했다. 비봉산 세심천 쉼터는 덱(Deck)을 설치하고 족구장을 정비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했으며, 비산1동 12개 사회단체가 환경정화활동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예산학교를 운영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뿐 아니라 주민,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제도를 홍보하고 제안사업을 접수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올 한해 주민참여예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과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안양시의 주인인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신우용/기자

고양시, 2023년 대한민국 독서대전 연중 프로그램 '책의 열두 걸음' 마지막 강연 마쳐

고양특례시가 지난 12월 21일 대한민국 독서대전 연중 프로그램인 '책의 열두 걸음'의 마지막 강연을 마쳤다.

'책의 열두 걸음'은 각 분야를 대표하는 권위자를 초청하여 진행한 인문학 강연 프로그램이다. 올해 2월 16일부터 12월 21일까지 문촌9종합사회복지관, 고양문화원,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대화도서관 등 다양한 곳에서 찾아가는 강연이 실시됐다.

강연은 역사, 예술, 과학, 경제 등 다양한 주제로 총 12회에 걸쳐 강연을 진행됐다. ▲1회차 '지도 위의 세계사'를 주제로 김종근 역사지리학자 ▲2회차 '재즈로 여는 2023' 남무성 재즈평론가 ▲3회차 '혐오: 감정의 정치학' 김종갑 교수 ▲4회차 '대한민국 독서사' 천정환 교수 ▲5회차 '왕의 리더십' 신병주 교수 ▲6회차 '뮤지컬 익스프레스' 황정후 인플루언서 ▲7회차 '성공의 이유' 김영준 칼럼니스트 ▲8회차 '인류세' 최평순 피디(PD) ▲9회차 '한국괴물백과' 곽재식 교수 ▲10회차 '관계의 과학' 김범준 교수 ▲11회차 '조선의 살림하는 남자들' 정창권 교수 ▲12회차 '우리는 모두 별에서 왔다' 윤성철 교수가 차례로 강연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도서관에서만 이루어지던 인문학 강연을 다양한 장소에서 진행하고, 지역 사회와 소통했다는 점에서 시민의 호응을 받았다.

도서관 관계자는 "인문학 강연 마라톤 '책의 열두 걸음'이 시민에게 새로운 아이디어와 시각을 전해주는 기회가 됐기 바란다. 앞으로도 고양시 도서관이 다채로운 인문학 강연을 운영해 시민에게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화도서관으로 문의하거나 대한민국 독서대전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한영기/기자

안산시, 연말연시 지역 축제·행사 안전관리계획 심의

2024 안산 천년의 종 타종행사 안전사고 예방 대책 논의

안산시는 이달 말일에 개최되는 '2024 안산 천년의 종 타종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 심의를 위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2일 안산시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열린 회의는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과 행사 주관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수의 인파가 몰리는 행사인 만큼 분야별 전문가들이 행사장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춰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시는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지적사항 등을 안전점검 실시 전까지 보완토록하고 축제 개최 전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 및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시설물, 전기, 가스, 소방 등 현장점검을 실시해 지적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전덕주 행정안전국장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축제·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성남시, 2024년 1월부터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

성남시는 수정·중원·분당구 보건소와 성남정병원 선별진료소가 오는 30일을 마지막으로 운영을 종료한다고 26일 밝혔다.

관내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는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현행 '경계'로 유지하되, 일반 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을 종료하기로 한 데따른 조치다.

앞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는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는 병의원 등 일반 의료기관에서만 받을 수 있다. 무료 PCR 검사 대상이었던 고위험시설 종사자, 일반 입원 예정자와 보호자는 내년부터 일반 의료기관에서 자비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 정책이 유지됨에 따라 먹는 치료제 대상군(60세 이상,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의료기관 입원예정 환자와 상주보호자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입소자)는 무료 PCR 검사 대상이다.

성남시보건소 관계자는 "선별진료소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보건소 기능을 정상화하고 상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겨울철 호흡기 감염 동시 유행 등을 감안해 올바른 손씻기와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범상/기자

김경희 이천시장, 한파 속'연탄배달'봉사로 온기 전해

김경희 이천시장은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지난 23일 장호원읍 일원에서 사동초 학부모회 가족봉사단과 함께 연탄배달 봉사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

매서운 한파 속에서 이루어진 이번 봉사활동은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훈훈한 정을 나누고자 이천시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마련됐다.

대상 가정들이 차량 진입이 어려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한 장 한 장 손으로 전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김경희 시장과 봉사단은 함박웃음을 지으며 700여 장의 연탄을 취약계층에 배달하며 온기를 불어넣었다.

한 자원봉사자는"날씨가 너무 추워 봉사가 쉽지 않았는데 연탄을 받아들고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이웃을 위해 작은 도움이 된 거 같아 마음이 뿌듯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봉사에 참석한 김경희 시장은 "따뜻한 나눔의 실천으로 세상을 환하게 밝혀주고 계시는 자원봉사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날카로운 관찰력, 창조적 상상력 발휘로 용인을 발전시키자"

22일 신규 통리장 158명 대상으로 '르네상스와 용인'주제 특강 진행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22일 오후 시청 에이스홀에서 신규 통리장 158명을 대상으로 '르네상스와 용인'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앞으로 3년 간 시와 시민들의 가교 역할을 할 신규 통리장들의 용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그들의 리더십과 소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에 초대받아 1시간 가량 강의를 한 것이다.

민선 8기 슬로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를 직접 지은 이 시장은 중세 유럽의 르네상스 이야기로 강의를 시작했다.

이 시장은 "중세 서양의 르네상스는 신(神) 중심의 세계관을 인간 중심으로 바꾸고 과거 고정관념을 탈피해 새로운 문화를 창조했다"면서 "용인도 과거의 난개발 이미지에서 벗어나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기틀을 갖췄고, 교통 · 교육 · 문화 · 체육 등의 분야에서도 발전의 길을 걷고 있으니 르네상스로 불러도 손색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르네상스가 꽃을 피운 15세기 이탈리아 피렌체에서는 명문가였던 메디치 가문에서 돈을 벌어 화가와 건축가, 조각가, 철학가 등 다양한 전문가를 후원하고 그들의 교류를 지원해 융합을 통한 새로운 창조를 했다"면서 "이를 경영학에선 '메디치 효과'라고 하는 데 제가 행정을 하면서 융합적 상상력을 통한 창조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리장 여러분들도 참신한 상상력을 발휘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보태준다면 시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관찰력과 상상력을 시정에 접목해 시민의 호평을 받은 한 사례로 올해 1월초부터 시작한 인도 제설을 꼽았다. 지난해 12월 말 눈이 내리던 날 점심을 들고 시청으로 복귀하면서 차도는 제설이 잘 되어 있는 반면 인도엔 눈이 쌓인 걸 보고 비탈진 곳과 사람 통행이 많은 곳 중심으로 인도의 눈을 치워 시민의 보행안전을 도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즉시 인도 제설기를 구입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겨울 9대의 인도용 제설기를 투입, 이면도로와 비탈길 등에 쌓인 눈을 깨끗이 치워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경기도의 풍수해 및 한파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6억원의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 시장은 르네상스의 거장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과 '천지창조'를 보여주며 "통념과 관례를 깨고 독창성을 발휘해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한 창조적 작품"이라고 소개했다.

이 시장은 "미켈란젤로는 '최후의 심판'에서 예수와 성모마리아를 제외한 천국과 지옥에 갈 사람들 대부분을 나체로 그려 당대에 큰 충격을 안겼다"며 "고정관념을 깬 그의 시도는 르네상스 시대에 걸맞는 창조를 해서 지금 시대에도 큰 영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16세기 이탈리아 궁정화가였던 주세페 아르침볼도의 루돌프 2세 초상화를 보여주면서 "황제의 초상화를 채소와 과일, 꽃으로 그린 기발한 작품"이라며 "당시 황제가 이 초상화를 좋아했는데 그것이 창조적일 뿐 아니라 농업사회의 풍요와 번창을 잘 나타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르네상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여러 작품을 소개한 이 시장은 용인의 변화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시장은 "올 3월 이동·남사읍에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계획이 발표됐고, 7월엔 국가산단 지역과 SK하이닉스의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삼성전자 기흥미래연구단지 등 3곳이 정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선정돼 용수·전력·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국가지원, 입주기업 정부 지원, 인재양성에 대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1월엔 국가산단의 배후도시가 될 이동읍 69만평에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계획도 중앙정부가 발표함에 따라 반도체 생태계와 경쟁력 측면에서 용인특례시는 세계 최고의 반열에 오르게 됐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을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 실현을 위해 'L자형 반도체 벨트' 구축 계획을 차근차근 구체화하고 있다"며 "이는 기흥의 플랫폼시티부터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제1·2 용인테크노밸리,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시의 주요 거점을 L자형으로 잇는 로드맵"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강의를 마무리하며 "오늘 특강이 주민들과 소통해 나가는 통리장님들 활동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각 지역 현장을 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보시고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텐데 필요한 것들은 시에 잘 전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범상/기자

하남시, 시민참여 혁신위원회 워크숍 개최… "시 미래 발전을 위한 결속 다져"

하남시가 최근 하남아이테코 대회의실에서 시민참여 혁신위원회 소속 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 역량 강화 및 활동성과 점검을 위한 '시민참여 혁신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민참여 혁신위원회는 각계 전문가와 시민대표로 이루어진 정책 자문기구로, 지난해 12월 출범 이후 공약사업, 중장기 발전계획 등 주요 사업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며 시정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규제정비과 임택진 과장을 강사로 초청해 '지방시대의 규제혁신과 지방공직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임택진 규제정비과장은 특강에서 "산업구조와 시장경제 변화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현장 중심 규제 발굴과 적극적인 규제 해소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의에 참석한 하남시 공직자들은 이 자리에서 교산신도시 관련 공업지역 물량 확대, 기업이전단지 이전 시 취득세 중과세 규제개선 등을 건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위원회가 제시한 기획 과제인 ▲(일자리) 청년해냄센터, 청년 채용 ZONE 운영 ▲(도시개발) K-스타월드 스튜디오 특화방안 ▲(교통) 교산지구 3호선 역사와 중부고속도로 하남드림휴게소를 연계한 통합복합환승센터 추진 ▲(복지문화) 임신·출산 지원센터 설립 및 봄철 벚꽃 축제 활성화 ▲(교육) 맞춤식 온라인통합교육플랫폼 구축에 대한 시정 반영 결과를 공유했으며, 2024년 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하남시 발전을 위해서는 당면한 규제 해소가 최우선 과제이며, 자족도시 실현을 위해서 규제개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 "이번 워크숍이 참석 위원들과 공무원들의 역량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하남시의 발전을 함께 고민하며 강남과 경쟁하는 하남, 살고 싶은 도시 하남을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범상/기자

김동근 의정부시장, 경로당에서 시민들과 소통하며 올해 현장시장실 마무리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12월 22일 부용마을3단지아파트 경로당에서 올해 마지막 '현장 시장실'을 열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김동근 시장은 추운 날씨에도 어렵게 찾아와준 시민 한 분 한 분에게 감사 인사를 건네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현장 시장실을 시작했다.

민락로데오거리 빗물받이 교체 건의, 부용마을 경로당 확대 요청, 맨발 건강 흙길 그늘막 설치 요청, 107번 노선 변경에 따른 불편사항 등 자유로운 주제로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내년도 시 재정 축소로 복지관이나 경로당 이용을 걱정하는 시민에게는 재정 상황과 운영 방안을 충분히 설명하며 꾸준한 지원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김동근 시장은 "2022년 7월부터 현장 시장실을 열고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시장실 문턱을 낮추고 시민들에게 다가가 소통하려는 노력이 전해졌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시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시민들의 삶이 변화되는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근 시장은 시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시작한 현장 시장실을 통해 매주 주민센터, 주제가 있는 현장, 공공기관 등 구석구석을 다니며 현장소통 행보를 이어왔다. 청내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시민들의 일상적인 이야기도 함께 나누며 고민하고, 시 정책에 대한 의문점도 속 시원히 밝히며 상호 간에 신뢰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소통을 위해 노력해 왔다.

최만식/기자

[기획보도] 더 편안하고 살기 좋게 바뀝니다! '2024년 달라지는 부천시 행정제도와 시책'

부천시가 2024년 새해를 앞두고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 달라지거나 새롭게 도입하는 행정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새해에는 시민이 생활 가까운 곳에서 꼭 필요한 정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어려워진 경제 상황과 인구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정·복지·가족 친화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책을 펼친다.

시민의 편의를 높인다.

3개 구 및 37개 일반동 체제 개편… 구청과 일반동 담당 업무 변경

원미·소사·오정 3개 구 및 37개 일반동으로 행정 체제를 개편한다. 3개 구 권역을 비롯해 동 경계 및 명칭은 광역동 시행 전과 동일하다. 단, 소사본3동은 소사본1동으로 바뀌고, 소사구에 옥길동(舊 역곡3동 옥련지구 포함)이 신설된다. 주소에 '○○구' 명칭이 추가되고, 동 청사 명칭은 '○○동 행정복지센터'로 통일한다.

행정 체제 개편에 따라 생활민원 신고 접근성이 향상된다. 혼인·이혼·개명 등 가족관계 신고와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 업무는 3개 구청, 전입·인감·대형폐기물 신고는 37개 일반동에서 각각 담당한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발급 업무가 구청 담당으로 변경된다. 앞으로는 부천시청이 아닌 각 구청 건설안전과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발급 및 관리 업무를 맡는다. 구청장 직인으로 면허 발급, 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이 이뤄진다.

부천시 마을변호사 신설

누구나 쉽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부천시 마을변호사를 신규 운영한다. 행정, 민사, 형사, 가사 등 일상생활 속 궁금증을 3개 구청에 배치된 전담 변호사가 무료로 법률 상담하는 서비스다. 사전 예약자를 대상으로 월 1회 2시간 이내로 진행한다.

개인 및 법인 지방소득세 기준 완화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하위 구간을 조정한다. 표준세율 0.6% 구간은 종전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1.5% 구간은 1,200~4,600만 원에서 1,400~5,000만 원으로, 2.4% 구간은 4,600~8,800만 원에서 5,000~8,800만 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3.5~4.5% 구간인 8,800만 원 이상은 변동이 없다.

기업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 지방소득세 세율을 구간별로 0.1% 낮춘다. 내국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 2억 원 이하는 종전 1%에서 0.9%로, 2~200억 원은 2%에서 1.9%로, 200~3,000억 원은 2.2%에서 2.1%로, 3,000억 원 초과는 2.5%에서 2.4%로 각각 인하된다.

청년과 청소년을 보듬어 키운다.

무주택 청년 주거비 지원금 신설

부천 청년 주거비 지원이 새롭게 마련된다. 부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1인 가구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19~34세 청년에게 월세를 최대 20만 원씩 최대 10회 지급한다. 100명을 대상으로 생애 1회 지원한다.

청소년 교복 및 체육복 비용 지원

관내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제공하던 교복비 30만 원을 40만 원으로 인상해 체육복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

자녀 출산 시 지원금 확대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을 확대한다. 출생 순위와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출생 아동 1인당 200만 원이던 지원 금액이 2024년 이후 출생아부터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맘(MOM) 편한 택시 운영 범위 및 시간 확대

임산부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맘(MOM)편한 택시 이용 범위와 운행 시간을 확대하고, 기본요금을 조정한다. 관내 병원뿐 아니라 인접한 도시의 산부인과 및 종합·대학·여성병원을 방문할 때 이용할 수 있다. 운행 시간도 1시간 이른 오전 6시부터 22시까지로 확대한다. 기본요금은 기존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조정했다. 비용은 택시 이용 건당 최대 13,000원까지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확대

다자녀 가정의 자녀 양육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을 선보인다. 한 가정에서 두 자녀 이상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이용자 중 둘째아는 50%, 셋째아는 100%까지 지원한다. 소득과 상관없이 1인당 연간 150만 원 이내에서 가능하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금도 일부 늘어난다. 중위소득 150% 이하의 0~5세 아동은 15%에서 20%로, 중위소득 120% 이하의 6~12세 아동은 20%에서 30%로 각각 추가해 지원한다. 두 자녀 이상이라면 본인부담금을 10% 더 받을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 한부모와 부모를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에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 한부모와 부모 가정의 0~1세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소득 기준에 따라 다르게 지원했던 본인부담금을 2024년 1월 1일부터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90%을 지원한다.

부모 급여 확대

부모 급여 지원을 확대한다. 종전대로 2022년 이후 출생아 중 0~23개월 아동이 지급 대상이다. 0~11개월 아동 대상으로 이뤄지던 월 70만 원 현금 지원이 100만 원 현금 지원으로 바뀐다. 12~23개월 아동 대상 월 35만 원 현금 지원은 월 50만 원 현금 지원으로 변경된다. 시설을 이용하는 영아는 바우처와 현금이 함께 지원된다.

구석구석 촘촘하게 살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계·의료·주거급여 개선

기초생활보장이 필요한 시민을 위해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금액을 높인다. 생계급여는 1인 최대 623,300원에서 713,100원으로, 4인 최대 1,620,200원에서 1,833,500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의료급여수급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7%에서 48%로 완화되고 기준임대료는 4인 가구 기준 394,000원에서 414,000원으로 조정된다.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폭을 넓힌다. 지원 대상 선정기준이 종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바뀐다. 또한 18세 미만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기존 월 20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인상한다. 단, 고등학생의 경우 3학년이 되는 해의 12월까지 지급된다. 0~1세 자녀가 있는 2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지원금액은 기존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향상된다. 2세 이상 자녀가 있는 2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지원금액은 종전대로 월 35만 원이다.

결식아동 급식 단가 인상 및 플랫폼 도입

결식아동 급식 단가가 1식 8,000원에서 9,000원으로 늘어난다. 현재는 배달 주문이 불가하지만 2024년 7월부터는 온라인 배달 주문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다.

음주운전 피해 아동 자립지원금 신설

음주운전 사고로 보호자 1명 이상이 사망한 아동에 대한 지원을 신설한다. 1인당 최대 400만 원의 생활지원비와 심리치료비 등을 지급한다.

윤용민/기자

전북도, 전 직원 대상 참여형 캠페인 전개

“갑질과 음주운전은 공직사회의 암입니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26일 청사 1층에서 출근길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갑질 및 음주운전 근절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연말을 맞아 송년 모임·회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음주운전과 직장 내 갑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감사관실이 주관해 ‘갑질과 음주운전은 공직사회의 암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됐다.

특히,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과 음주운전을 발본색원하자는 취지로 ‘갑질·음주운전 절대 하지 않기 다짐 서약’ 등 참여 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직원들 스스로 갑질 및 음주운전 척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지를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이뤄졌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매월 11일을 ‘상호존중의 날’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날 캠페인도 그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상호존중의 날’은 직원 간 상호존중을 유도해 직장 내 갑질을 예방하기 위한 시책으로 △부당한 지시나 요구하지 않기 △감사와 칭찬의 말 주고받기 △직급에 관계없이 존댓말 사용하기 △존중의 호칭 사용하기 △직원 간 사생활 존중하기 등 상호존중을 위한 5대 실천 과제를 지속 안내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김관영 도지사도 이날 출근길에 ‘갑질·음주운전 절대 하지 않기 다짐 서약’을 직접 실천하고 직원들과 ‘직장 내 갑질 타파, 음주운전은 패가망신’ 구호를 함께 외치는 등 갑질 및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캠페인에 동참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갑질과 음주운전은 타인의 행복과 건강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기에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이다”며 “앞으로도 도청 내 갑질과 음주운전 근절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순천시 2024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1월 4일부터 시작!

지역 특화작목 신기술과 최신동향 등 수요자 중심으로 구성

회차	일자 / 시간	교육내용	계획인원	강사	비고
1	1. 04.(목) 13:30~17:00	·공익직불 의무교육 ·딸기 재배기술 - 고품질 딸기묘 조건 - 딸기 기본생리 및 온실 관리 등	50명	김종필	주암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
2	1. 11.(목) 13:30~16:00	·공익직불 의무교육 ·GAP인증교육 - 농산물 생산 및 수확 후 관리 - 잔류 농약, 중금속 관리 등	50명 (복사골 영농조합법인 외)	김재영	월등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
3	1. 19.(금) 13:30~17:00	·공익직불 의무교육 ·양봉 사양관리 - 봄철 양봉 사양 및 질병관리 등	200명	미	정
4	1. 25.(목) 13:30~16:00	·공익직불 의무교육 ·GAP인증교육 - 농산물 생산 및 수확 후 관리 - 잔류 농약, 중금속 관리 등	50명 (낙안 원예영농 조합법인 외)	김재영	낙안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
5	2. 01.(목) 13:30~17:00	·공익직불 의무교육 ·단감 재배기술교육 - 재배 생리 및 환경, 정지전정 - 병해충 관리 등	50명	서재만	순천시혁신 농업인센터 (덕월동)
6	2. 15.(목) 13:30~16:00	·공익직불 의무교육 ·GAP인증교육 - 농산물 생산 및 수확 후 관리 - 잔류 농약, 중금속 관리 등	50명	김재영	순천시혁신 농업인센터 (덕월동)
7	2. 22.(목) 13:30~17:00	·공익직불 의무교육 ·오이 재배기술교육 - 기본생리 및 온실환경 조성 등	50명	정종모	순천시혁신 농업인센터 (덕월동)
8	2. 29.(목) 13:30~16:00	·공익직불 의무교육 ·GAP인증교육 - 농산물 생산 및 수확 후 관리 - 잔류 농약, 중금속 관리 등	50명	김재영	순천시혁신 농업인센터 (덕월동)
9	3. 07.(목) 13:30~17:00	·공익직불 의무교육 ·벼 재배기술 - 강대찬·새청무 품종 특성 - 적정 이앙기 및 수확기 환경 - 병해충 방제 약효/약해 등	50명	이 인	순천시혁신 농업인센터 (덕월동)

※ 3회차 양봉 사양관리 교육은 한국양봉협회 순천시지부와 협의하여 추후 확정 ※ 수요상황에 따라 세부계획(회강)이 변경될 수 있음
※ 교육 관련 세부 문의사항은 순천시 농업정책과 농업인육성팀으로 연락바랍니다.
순천시 농업정책과 (061-749-3043)

순천시는 혁신농업인센터 등에서 2024년 1월 4일 딸기 재배기술 교육을 시작으로 3월 7일 벼 재배기술 교육까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시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는 작목 5종(딸기, 양봉, 오이, 단감, 벼)에 대해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과 농업정책 필수·의무교육인 GAP 인증, 공익직불제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작물 재배기술 교육은 농업기술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스타급 강사진으로 구성되어 지역 농업인에게 농업분야 최신동향과 지식을 공유해 각종 현장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농업인이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일정은 순천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농업인 교육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농업정책과 농업인육성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승준/기자

국립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남원)조성 박차

2024년 정부 예산에 실시설계용역비 20억 원 반영

21일 국회는 국립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남원)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20억 원을 반영한 2024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확정했다.

이로 인해 남원시는 사업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국립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남원) 조성사업은 윤석열 대통령 전북 대표 지역공약사업(문화.체육.관광분야)으로 중부권 이남 지역 전체를 아울러 유소년과 청소년 중 우수 선수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첨단 훈련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스포츠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비로 지원되는 총사업비 490억 원의 대형 사업이다.

이번 2024년 국립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남원) 건립을 위한 20억 원의 예산 확보는 그동안 남원시·전북도·국회(이용호 의원) 등과 함께 합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남원시는 전라북도와 공동 대응하여 대한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국회 등을 수시 방문하여 사업 타당성 및 추진상황을 설명하며 2024년 설계용역비 반영을 적극 건의해 왔으며, 2024년 정부 예산안에서 삭감된 예산을 국회 심의단계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해왔다.

본 사업은 2024년 정부 예산에 반영된 20억 원은 현재 추진 중인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2024년 4월까지 완료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집행할 계획으로 2024년 1월중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수행업체에서 남원을 방문하여 입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제1차 스포츠 진흥기본계획(2024 부터 2028) 확정안에 엘리트 선수 육성 체계 마련을 위한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훈련시설 건립사업’을 반영했다.

이에, 남원시는 국립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남원) 건립사업이 완료되면, 스포츠 명품도시로서의 입지를 굳힐 것으로 전망된다.

이남출/기자

완도군, 해양치유산업 성공 기원 '해맞이' 행사 연다!

해양치유센터 인근 명사십리 이벤트 광장에서 1월 1일 6시 30분 진행

완도군이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아 오는 1월 1일 ‘해맞이 행사’를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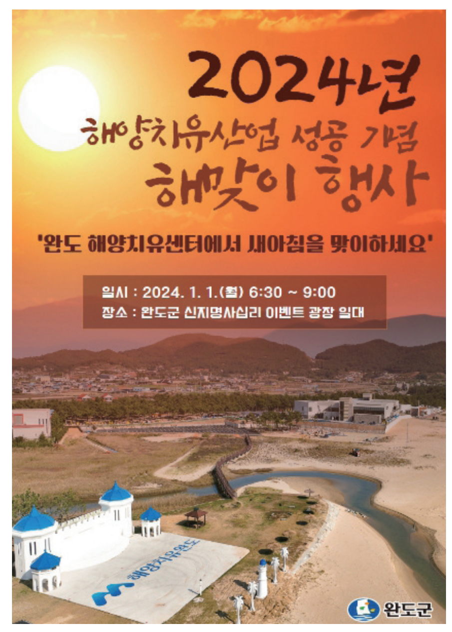
군은 이번 해맞이 행사를 역점 사업인 ‘해양치유산업 원년’을 기념하고 지난 11월 24일 개관한 해양치유센터를 알리고자 센터 인근에 조성된 ‘명사십리 이벤트 광장’에서 개최한다.

행사는 오전 6시 30분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풍물패 길놀이, 팝페라와 국악의 어우러진 퓨전 공연, 대북 타고, 소망 쪽지를 적어 친환경 풍선에 날리는 ‘소망 풍선 날리기’ 등이 진행된다.

지역 사회단체에서는 방문객들을 위해 핫팩과 따뜻한 차를 포함해 완도 특산품을 넣은 떡국도 현장에서 직접 조리해 제공하며 온정을 나눌 예정이다.

특히 많은 인원이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군에서는 29일에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완도경찰서 등 유관기관 협조 체계 및 응급의료지원반, 현장대응반 등을 구축하여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탁 트인 신지 명사십리 해변에서 보는 일출은 장관일 것이다”면서 “군민과 관광객이 새해 평안과 소원 성취를 염원하며 의미 있는 추억을 남길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해맞이 행사가 열리는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에 위치한 완도 해양치유센터는 1월 1일에도 방문객들을 위해 정상 운영(오전 9시 오픈, 10시 프로그램 운영)하며, 50% 할인된 금액으로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양영율/기자

함평군, '100세 건강채움' 월야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운영 성료

26일 전남 함평군은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나산·해보·월야면 주민을 대상으로 추진한 ‘월야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운영’을 최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2021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함평군이 선정됨에 따라 월야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를 2022년 12월 이전신축하고 올해 2월부터 본격 운영했다.

군은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굿모닝 필라테스 ▲솔찬한 영양교실 ▲혈관팔팔 건강교실 ▲한의약 약선요리교실 ▲기억총총 치매예방교실 ▲시니어건강노리터교실 등 13개 사업을 222회 운영했다.

또한 치매상담 487명, 금연상담 19명, 영양상담 124명 등 건강상담실을 운영했으며, 180가구를 대상으로 가가호호 방문 건강 관리를 실시해 지역주민의 건강 지킴이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

그 결과, 주민들의 식습관개선 및 신체활동 등 건강생활실천 인식개선이 향상되고 특히 치매 프로그램 참여자의 우울척도에서 개선 효과가 크게 나타났으며 사업참여자 만족도가 100%를 달성해 올 한해 성공적인 운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주민 요구도를 반영한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과 활력이 더욱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진도군, 코레일 관계자 초청 홍보여행(팸투어) 실시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위해…운림산방, 진도타워 등 레츠코레일! 레츠진도!

진도군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광주전남본부 관계자 8명을 초청해 진도 홍보여행(팸투어)을 실시했다.

이번 홍보여행(팸투어)은 철도와 연계한 여행상품 개발로 관광객 유치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운림산방, 신비의바닷길 체험관, 진도타워 등 진도의 대표 관광명소를 방문했다.

홍보여행에 참여한 강광석 광주여행센터장은 “눈이 많이 왔지만 눈 쌓인 운림산방의 풍경이 너무 멋있었다”며 “사계절 멋진 풍광이 있는 진도군 관광홍보를 위해 힘을 더하겠다”고 말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홍보여행(팸투어)을 통해 더 많은 관광상품이 개발되고 아름다운 진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더 많아지길 기대한다”며 “철도 이용 여행객들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진도군도 코레일과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다양한 여행상품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진/기자

“우리 마을 현판 걸렸네” 나주시,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우수마을 현판식

윤병태 시장, 반남면 옥련마을서 주민들과 현판식

올 한 해 아름답고 쾌적한 마을 환경을 열심히 가꿔온 주민들이 마을회관에 내걸린 현판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박수를 보냈다.

전라남도 나주시는 20일 반남면 옥련마을회관에서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평가에 따른 ‘우수마을’ 현판식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 공동체 정신 회복과 마을 활력 제고를 목표로 오는 2030년까지 주민이 주도해 마을 환경을 개선하는 전라남도 시책사업이다.

나주시에선 올해 총 136곳 마을이 사업에 참여했다. 이 중 반남면 옥련마을, 동강면 마현·복룡마을, 봉황면 선동마을 등 4곳이 전라남도 우수마을로 선정됐다.

우수마을 4곳을 대표해 현판식을 가진 반남면 옥련마을은 올해 첫 사업으로 폐타이어 조형물 제작과 마을 진입로 주변 형광 페인트 작업을 통해 주민, 방문객의 야간 시인성을 개선했다.

옥련마을과 더불어 동강 마현마을은 마을 주변 화단 조성 및 벽화 작업을, 동강 복룡마을과 봉황 선동마을은 각각 빛바랜 노후 담벼락에 마을 특색을 살린 벽화를 그려 넣어 생동감 있는 마을 거리를 조성했다.

이들 마을은 내년도 사업비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됐다.

주민들과 현판식을 가진 윤병태 시장은 “계획수립부터 사업추진, 사후관리까지 자발적인 참여와 단합으로 아름다운 마을을 만든 주민들에게 축하와 감사를 전한다”며 “마을 역량을 키우고 공동체 의식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안/기자

전남도, 20개 기업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일자리·경제한마당 행사서 유공자 격려·성과 공유

전라남도는 올 한해 일자리·지역경제·투자유치 분야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유공자를 격려하는 일자리·경제한마당 행사를 지난 22일 도청 왕인실에서 개최했다.

행사에는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시장, 군수 및 부단체장 등 관계공무원, 일자리 우수기업 대표, 일자리·지역 경제·투자유치 유공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 팝페라 공연을 시작으로 민선8기 일자리·경제·투자유치 발자취 영상을 상영해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 일자리 우수 기업에 인증서를 수여하고, 일자리·경제·투자유치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시군 표창이 이뤄졌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신세계F&B (유)농업회사법인, ㈜나연테크, ㈜용호기계기술, ㈜에스씨크리에이티브, 다온플레이스㈜, 아이오티플러스㈜, ㈜무창, ㈜혜성티앤시, 죽암에프앤씨, ㈜현도바이오푸드, ㈜에스컴텍, ㈜바이오에프디엔씨, ㈜뉴텍, 정동중공업, 주식회사 빈센, 코트그린 농업회사법인, ㈜대불공단운수, 삼광특수기계, ㈜대한철강, 제이엔티㈜ 총 20개다. 인증기업에는 기업당 2천만 원의 고용환경개선자금이 지원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 혜택도 있다.

일자리 분야 우수 시군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협력체계 구축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목포시가 대상 영예를 안았다. 최우수상에 나주시·화순군, 우수상에 여수시·광양시·해남군, 장려상에 보성군·강진군·무안군·영광군이 선정됐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우수 시군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고 수산물 소비 촉진에 힘쓴 영광군이 대상에 선정됐다. 최우수상에 목포시·광양시, 우수상에 여수시·담양군·무안군, 장려상에 해남군·함평군·완도군이 수상했다.

투자유치 분야 우수 시군 대상에는 적극적인 투자협약 및 여건 조성으로 투자유치 실적이 우수한 광양시가, 최우수상에 장흥군·영광군, 우수상에 여수시·무안군·함평군, 장려상에 순천시·곡성군·고흥군이 각각 선정됐다.

명창환 부지사는 "전남도는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민에게 좋을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기업인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전남, 일하기 좋은 전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올해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전국 지자체 일자리 평가에서 광역지자체 최초로 9년 연속 수상 성과를 거뒀다. 전국적인 고물가 상황에서도 공공요금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중앙부처 최우수상을 받는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덜었다는 평가다. 또한 이차전지, 수소,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투자유치로 전남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박종배/기자

보성군, 율포솔밭해변에서 2024년 새해 해맞이 행사 개최

새해를 맞아 떠오르는 희망, 해맞이 행사로 여는 새로운 시작!

보성군은 오는 1월 1일 율포솔밭해수욕장 일원에서 온 군민과 함께 모두의 발전과 안녕, 화합을 기원하는 '갑진년(甲辰年) 해맞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맞이 행사는 보성라이온스클럽이 주최·주관하며 1월 1일 오전 6시 30분부터 새해를 여는 타악 공연, 국악 공연, 성악 공연을 시작으로 새해 희망 나눔, 달집태우기 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행사장 주변에서는 방문객들을 위해 직접 조리한 새해 떡국, 온음료, 손난로를 준비해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보성라이온스클럽 백점룡 회장은 "갑진년 힘차게 비상하는 청룡의 기운을 받아 모든 사람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해맞이 명소인 보성 율포솔밭해수욕장에서 군민과 관광객들이 2024년 새해 특별한 첫 시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쁜 마음으로 힘쓰겠다."라며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새로운 한 해를 희망차게 맞이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보성군에서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행사가 열리는 율포솔밭해수욕장에 안전요원 50여 명을 배치하고 체계적 질서 유지를 위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 행사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최원영/기자

강진군, '폼生폼士 강진향교'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문화재청장상 수상 쾌거, '명예의 전당'까지 멀지 않았다

강진군과 강진문화원이 추진한 '폼生폼士 강진향교'가 2023년 지역문화재 활용 우수사업으로 선정돼 2년 연속 수상의 영광을 거머쥐며 문화재청장상과 상금 1백만 원을 수상했다.

전국에서 선정된 110개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중 현장점검과 전문가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 7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 14일 대전 DCC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강진군을 비롯해 대구시, 청주시, 양주시가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특히 강진군 시문학파기념관에서 추진하는 '더 샵 252 영랑생가!' 고택 종갓집 사업이 처음으로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2개의 우수 지자체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폼生폼士 강진향교 프로그램은 유치원생부터 초·중·고등학생, 성인까지 전 계층을 아우르는 콘텐츠로, 특히 다산인(人·in) 강진향교 프로그램은 다산 정약용과 차라는 매개체를 이용한 다례 체험으로 인기가 많았으며, 인문학 강의 및 토론을 중심으로 기획된 다산살롱과 다산 지성 프로그램 등이 호평을 얻었다.

폼생폼사 강진향교는 우수한 체험 교보재를 개발해, 자생력을 갖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의 모범사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폼生폼士의 '폼'은 플랫폼(platform)을 의미하며, 문화와 교육, 체험이 공존하고 자유롭게 교류하는 소통의 정거장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문화재 활용사업은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명예의 전당에 오르게 되는데, 강진문화원은 이미 2년 연속 선정되어 전당에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을 넘어 전국적인 교육 프로그램인 폼생폼사 강진향교 프로그램이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기쁘다"며 "우리 고유의 전통과 역사를 아는 것은 강진의 정체성을 지키고 힘을 기르는 일로, 명예의 전당에 올라간 이후에도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추윤호/기자

신안군 퍼플섬에 퍼플장미로 물들이다!

신안군–경기도 '딥퍼플' 장미 상생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신안군과 경기도는 지난 12월 22일 신안군청 영상회의실에서 퍼플장미'딥퍼플(보라장미)' 활용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경기도(농업기술원)는 신안군에 '딥퍼플'장미의 우량 종묘 공급과 재배 기술을 지원하고, 신안군은 지역 적응성 검정을 통해 생산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지역관광 활성화와 화훼농가육성 등 상호협력을 통한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작년 10월 맺은 전라남도와 경기도의 상생협력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농업기술원이 품종 권한을 가지고 있는 '딥퍼플'장미를 신안군 퍼플섬에 컬러 관광마케팅으로 활용하면 양 기관 상호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어 신안군에 역 제안해 협약이 체결됐다.

'딥퍼플'장미는 2010년에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국내 육성 품종으로 기존의 장미와 달리 가시가 없고, 두 가지 색의 화려한 화색을 지니고 있어 꽃시장과 소비자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신안군은 지난 10월부터 '딥퍼플'장미의 모종을 노지 정원에 심어 섬 지역 적응성(토질 및 월동 여부 등) 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적합 여부에 따라 퍼플섬에 장미정원을 조성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퍼플섬으로 유명한 신안군의 반월·박지도는 21년 12월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가 지정하는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된 후 연간 신안군 인구 4만의 10배 정도 되는 4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방문했다. 또한 퍼플섬에 장미정원이 조성된다면 라벤더(5월), 버들마편초(6~8월), 아스타(10월) 꽃축제와 더불어 공백기인 5~6월에 환상적인 퍼플장미정원으로 컬러매칭 가능한 매력적인 아이템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퍼플섬에 장미정원 조성과 더불어 퍼플장미를 활용한 다양한 관광자원 상품화 개발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박홍률 목포시장, 연말 민생행보 전통시장 방문"밀착 호흡"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과 동행 수산물 활로 살펴

박홍률 목포시장이 연말.연시를 맞아 지난 22일 목포경제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민생현장에 밀착하는 정책을 펼쳤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동부시장을 방문해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및 민생물가 안정 점검을 진행했는데, 박 차관과 함께 동부시장을 면밀히 둘러봤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수산물 구매 촉진을 위해 일정액 이상 구매시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주는 행사를 전국 권역별 전통시장 30여개소에서 실시했는데 이 중 동부시장이 환급률 및 활성화 부문에서 좋은 성과를 내면서 해양수산부 방문이 이뤄졌다.

박 시장은 전통시장 및 목포 수산물에 대한 중앙부처의 관심을 유도하고 지원을 이끌면서도 어려운 전통시장의 활력을 찾고 민선 8기 '청년이 찾는 큰 목포'비전을 성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올 한해 목포시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의 성공적인 정책을 뒷받침하는 홍보는 물론 수산물 구매금액의 40%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선순환 구조의 효과를 시민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올해 들어 목포 전통시장에 보급된 온누리상품권 환급액은 4개 시장에 21억5천만원으로 수산물의 대외적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의 실적을 올렸다.

시는 수산물에 있어서는 상시 행사, 전국체전 연계 대규모 행사, 소규모 특별전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유인했다.

또한, 시는 전통시장의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해 꾸준히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상인들이 생생한 목소리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원스톱으로 해결했다.

아케이드 정비, 노후전선 정비, 시장 실내 노면 개선 등 시설현대화뿐만 아니라, 문화관광형 시장, 디지털 전통시장 등 특성화 사업도 의욕적으로 추진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매주 금.토요일 남진야시장 운영은 성공적인 사례로 볼 수 있는데, 연인원 5만명 이상 방문해 자유시장의 매출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전국단위 직능단체인 사)전통시장서민경제살리기 국민운동본부(총재 문상주)의 전통시장 살리기 장보기 행사가 총 3회(방문객 2,000명)에 걸쳐 진행됐으며, 이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내외적인 평가를 받았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전통시장은 서민경제의 허파로 시장이 살아야 목포가 산다는 신념으로 임하고 있으며, 기필코 민선 8기에는 전통시장을 본궤도에 올려놓겠다"는 야심찬 각오를 밝혔다.

박종배/기자

구례군 주민들 양수발전소 유치기원 캠페인 줄이어!

정부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신규 양수발전소 대상지를 연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남 구례군 주민들의 양수발전소 유치 기원 캠페인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9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신규 양수발전소 사업자 모집 공고를 발표한 이후 구례군 읍면별 사회단체와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회, 재향군인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등 지역 사회단체 중심으로 릴레이 유치 캠페인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다.

주민들은 '양수발전소가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고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대두되고 있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양수발전소 입지 최적지인 구례를 선정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구례군은 양수발전소 예정지인 문척면 주민 93.4%가 양수발전소 유치에 동의했으며 수몰 예정지 10여 가구도 모두 동의서를 제출한 상황으로 높은 주민 수용성이 확인됐다.

특히, 유치 예정지인 문척면 주민 스스로 유치위원회를 출범하고 문척면 어르신들이 직접 출연하여 양수발전소 유치 홍보영상을 만드는 등 주민 중심의 차별화된 유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구례 양수발전소 입지 예정지에 345kV 송전선로가 지나고 있어 발전소 건설에 따른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이 불필요하다는 전망도 구례 양수발전소 유치 가능성을 한층 높이고 있다.

이는 예산 절감뿐 아니라 송전탑 건설에 따른 2차 민원 우려도 없어 구례 양수발전소 후보지가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뛰어난 입지조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양수발전소 유치전에는 전국 6개 지자체(전남 구례, 곡성, 경남 합천, 경북 봉화, 영양, 충남 금산)가 경쟁하고 있는데, 이 중 2~4개 지자체가 금년말경에 선정될 전망이다.

김성현/기자

경북도 원전 예산 다 지켰다! 원전산업 생태계 조성 탄력받아

전년 대비 76% 증가한 역대 최대규모 1,216억원 확보

경북도는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 정부예산에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원자력 관련 예산이 전액 반영됨에 따라 차세대원자력 산업생태계 조성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 밝혔다.

이번 정부예산에 반영된 경북지역 원자력 관련 예산은 전년도 692억원 대비 524억원 증가(76%)한 1,216억원으로 이는 역대 최대규모다.

주요 사업으로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 606억원 △용융염원자로 기술개발사업 73억원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설립 350억원 △중수로해체기술원 설립 57억원 △방사성폐기물분석센터 설립 39억원 △현장방사능 방재지휘센터 설립 45억원이 반영돼 앞으로 원자력 관련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원자력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 설립사업에 30억원, SMR 제조기술 관련 기업 지원을 위한 △SMR 제작지원센터 설립사업에 2억원이 신규 편성돼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경북도는 올해 초 경주·울진 원자력 국가산단이 최종 선정됨에 따라 차세대원자력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국회의원 및 원전 시군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국비 확보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또한 지난달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원전산업 지원 관련 정부예산 1,820억원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국회를 긴급 방문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여야 당·원내대표 등과 면담하고, 삭감된 원전 관련 예산의 복원을 간곡히 호소한 바 있다.

경북도는 원자력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성공적인 원자력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핵심요소인 차세대원자력 산업생태계 조성 기반 및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한다.

도는 향후 해당 시군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국가 에너지 백년대계인 원전산업이 정치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되며, 이번 원자력 예산복원에 대승적으로 합의한 여·야 지도부에 감사하다"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세계 각국이 차세대 원전시장 선점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지금이 우리나라 원전 수출과 기술혁신의 골든타임이며, 차세대원자력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경상북도가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대구광역시, 문체부 주관 공모사업 선정 국비 7.9억 원 확보!

2024대구마라톤대회 6억 원, 2024대구세계대학태권도페스티벌 1.9억 원

대구광역시는 2024년 대구에서 개최하는 국제경기 2개 대회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2024년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6년 연속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4년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사업'은 지역의 다양한 국제경기대회를 선별해 지역체육 활성화와 국제대회를 통한 지역 위상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60억 원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공모사업은 총 13개 시·도가 33개 사업을 신청해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대구광역시를 포함한 12개 시·도에서 20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이로써 대구광역시는 6년 연속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고, 사업선정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특색있고 경쟁력 있는 국제경기대회로 인정받아 국비 7.9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

2024년 4월 7일 개최되는 대구마라톤대회는 세계 최고상금 지급(1위 16만 달러), 집결지와 코스 변경('23년 국채보상공원 출발 3회 반복 루프코스 → 대구스타디움 출발 1회 순환코스), 대회 참가규모 확대(1.5만 명 → 3만 명), 마스터즈 풀코스 신설 등 올해 대회보다 더 획기적이고 변화된 모습으로 대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번 공모사업 선정(국비 6억 원)으로 대회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동력을 확보했다.

대회 개최 24년째인 2024대구마라톤대회는 올해 대회에 이어 2년 연속 세계육상연맹이 인증하는 국내 유일의 '골드라벨' 대회로 개최할 계획이며, 세계 2번째로 선정된 '국제육상도시 대구'의 위상에 걸맞게 세계 최고상금으로 우수한 엘리트 선수와 마라톤 영재들을 초청해 세계 최고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해 나갈 계획이다.

2024년 7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계명대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되는 대구세계대학태권도페스티벌은 20여 개국 1,800여 명의 국내외 대학생들이 모여 태권도를 통해 스포츠의 가치를 나누고 문화교류의 장을 펼치는 태권도 단일종목 최초의 세계대회이며, 이번 공모사업으로 국비 1.9억 원을 확보해 순조로운 대회 준비를 할 수 있게 됐다.

조경선 대구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6년 연속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며, 우수한 국제대회가 하나의 지역 브랜드가 되어 국내외 관광객 유치로 이어져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2023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인 대상(大賞) 시상식 개최

12.26. 10:30 시청 소회의실2에서 개최

부산시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소회의실2에서 '2023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인 대상(大賞)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인 대상(大賞)은 본사를 부산에 두고, 종업원을 10명 이상 고용하고,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 중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고 선진 경영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인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1999년부터 올해까지 총 150명에게 시상됐다.

올해는 중소기업인 대상(大賞)에는 ▲성일경 동경철강㈜ 대표이사 ▲김성하 KMCP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진기 ㈜한승항만물류산업 대표이사 ▲김수진 ㈜부산세광식품 대표이사 ▲주영재 부경테크 대표 ▲송영석 ㈜KSA솔루션 대표이사 ▲정성욱 글로벌마린서비스㈜ 대표이사 총 7명이 선정됐다.

성일경 대표이사가 이끄는 동경철강㈜은 CHQ 강선 등 연간 3만톤 규모의 철강 선재 소재를 생산·공급하는 소재 기업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뿌리전문기업, 소재부품기업 인증을 받았으며, 스마트공장 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정적인 생산과 재고 관리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있다.

김성하 대표이사가 이끄는 KMCP 주식회사는 친환경 스마트 중소형 선박 전문기업으로, 액화 수소 레저어선의 설계부터 제작을 모두 처리하고 선박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2023년 부산광역시 해상택시 운송사업자로 선정됐다.

박진기 대표이사가 이끄는 ㈜한승항만물류산업은 국내 유일 장비부터 운영까지 컨테이너터미널 총괄 위탁이 가능한 중소기업으로, 2022년 현대산업개발과 협력을 통해 부산 컨테이너터미널 주관사로 선정됐으며 2023년 대한민국 일자리 창출 으뜸 100대 기업에 선정됐다.

김수진 대표이사가 이끄는 ㈜부산세광식품은 프리미엄 어묵 '어설랑'을 출시한 식품기업으로, 제품화 가능한 최고 등급의 연육을 사용해 맛과 건강을 모두 잡았으며, 사조대림, 김가네, 신전떡볶이 등 대기업과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에 제품을 납품하여 시민들의 식탁을 풍요롭게 해주고 있다.

주영재 대표가 이끄는 부경테크는 '부경이지웜'을 출시한 전기난방기기 전문기업으로, 제품의 생산 라인을 갖추고 있는 부산 유일의 중소기업이다. 주력제품인 전기온돌판넬의 핵심 공정에 사용되는 대면적 판재 성형기술의 우수함을 인정받아 국가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됐다.

송영석 대표이사가 이끄는 ㈜KSA솔루션은 SI/SM과 자체 솔루션 및 서비스를 개발·운영하는 정보 기술(IT) 기업으로, 기획재정부 국고보조시스템 구축 및 경남은행 모바일 앱 개발에 참여했고,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2022년 기술보증기금 밸리기업으로 선정됐다.

정성욱 대표이사가 이끄는 글로벌마린서비스㈜는 발전소 유지·보수 전문기업으로, 이라크에 디젤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엔진 부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등 수출 경쟁력을 확보해 2023년 제60회 무역의 날 천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으며, 최근 데이터센터 개발 등 사업 다각화를 추진해 2023년 에코델타시티 그린데이터센터 조성 우선 분양자로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중소기업인 대상(大賞) 트로피를 증정하고, ▲시 중소기업 육성·운전자금 이차보전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시 공영주차장 및 광안대교 무료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을 3년간 지원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올해는 특히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뿌리산업과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등 4차산업혁명을 이끄는 신산업 분야의 기업인들께서 두각을 나타내주셨다"라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주신 수상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하드린다"라고 전했다.

김희태/기자

청송군, '식품정책분야' 우수기관 선정

청송군은 12월 21일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는 2023년도 식품·공중위생관리사업 시·군 종합평가에서 식품정책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식품정책분야, 식품안전분야, 공중위생분야 등 4개 분야 16개 항목으로 이루어졌으며, 청송군은 주방환경 개선사업, 안심식당 운영, 우리가게 셀프클린업 추진 등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식품정책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위생관리로 군민과 청송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게 먹을 수 있는 외식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양군청 건설안전과, '희망2024나눔캠페인' 성금 기탁

'2023년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포상금 200만원 전달'

영양군은 22일,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희망2024나눔캠페인'에 동참하여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포상금 200만 원 전액을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영양군청은 지난달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추진한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포상금 200만 원을 수여받았으며, 포상금 전액을 연말연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전달하기 위해 경북공동모금회에 전액 기부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직원들의 노고가 이웃들의 어려움에 보탬이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희망2024나눔캠페인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연말연시 우리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동절기 한파에 나눔의 손길이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희망2024나눔캠페인'은 내년 1월 31일까지 모금을 지속할 예정이며, 이날 기부된 성금은 해당 단체를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윤근수/기자

경주시, 귀농귀촌 통합플랫폼'그린대로'우수 지자체 선정 및 2023년 농촌진흥기관 종합평가 우수상 수상

2023 그린대로'우수 지자체 선정, 농촌진흥사업 우수기관 '우수상' 및 우수팀 수상

경주시가 대한민국 귀농·귀촌 대표 포털 '그린대로' 11월 정보제공 전국 단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그린대로'는 귀농·귀촌 준비에서 정착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지난 7월 오픈한 귀농귀촌 플랫폼이다.

이번 평가는 그린대로 플랫폼에 구축된 139개 시·군 중 지역소개, 지원정책, 알림광장 현행화 등 3가지 항목으로 평가했으며, 경주시는 귀농홍보영상과 다양한 귀농정책 정보 제공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밖에도 경주시는 경상북도농업기술원에서 열린 '2023년 농업 연구성과 공유대회'에서 농촌진흥사업 우수기관 '우수상'과 우수팀(농업진흥과 교육훈련팀)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행사는 농촌진흥사업 발전을 위한 성과 평가 대회로 경주시는 22년도에 이어 농촌지도사업 혁신전략 추진실적, 농촌자원 활성화, 전문역량 개발실적 등 9개 지표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어 농촌진흥사업 우수팀 수상은 경주농업대학, 새해농업인실용교육, 귀농귀촌 지원사업 등에 대한 추진실적과 대내외 평가 및 홍보 실적, 협력사업 추진 실적, 팀워크 등 4개 부문 평가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성과는 농업인과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경주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 값진 성과를 얻었으며, 앞으로도 미래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농업 전문인력 육성과 귀농인 맞춤형 정착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타용/기자

경북도『2023년 지역경제활성화 평가』우수 시군 시상

소상공인·전통시장 2개 분야 16개 지표 종합 평가

경상북도는 지난 22일 도청 사림실에서 『2023년 지역경제활성화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8개 시군에 대해 시상금과 표창패를 수여했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심을 높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사업 발굴과 추진, 우수사례 공유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시행됐다.

평가항목은 소상공인·전통시장(2개 분야) 16개 지표로 구성됐으며, 시군에서 제출한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시와 군을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주요 평가항목으로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 지원 실적 ▲지역사랑상품권 판매실적 ▲물가안정관리 우수 시책 ▲전통시장 장보기 실적 ▲전통시장 디지털 활성화 실적 ▲전통시장 활성화 우수사례 등이다.

평가 결과 영주시와 청도군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우수상에는 경주시와 울진군, 장려상에는 포항시, 문경시, 고령군, 칠곡군이 선정돼 도지사 표창패와 함께 시상금(최우수 500만원, 우수 300만원, 장려 100만원)을 전달했다.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영주시는 경영 한계에 봉착한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재창업 및 폐업지원 사업",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지원", 호우피해에 따른 복구지원의 일환으로 "수해피해주민 지방공공요금 감면"을 시행했다.

청도군은 전통시장의 활력 증진을 위한 문화공연사업인 "전통시장 흥겨운 문화장터"와 청년 소상공인 창업 지원을 위해 "청년외식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 높이 평가받았다.

우수상과 장려상을 받은 6개 시군 또한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추진해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했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올 한해 유난히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를 위해 발 벗고 나서준 시군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면서, "어려운 경제 여건을 함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민생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 물가 안정화 등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같이 나누는 가치'…영주시 사회적경제와 함께하는 김장나눔

영주시사회적경제기업협의회가 지난 23일 영주시사회적기업공동판매장(공유플랫폼 3층)에서 '영주시 사회적경제와 함께하는 김장나눔 행사'를 열었다.

영주시사회적경제기업협의회와 영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주관한 이번 김장나눔행사는 영주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함께 지역의 소외계층을 돌아보고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행사에는 영주시의 사회적경제기업 대표 및 임직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김장나눔 행사에 사용된 재료는 모두 영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구성했으며, 김장한 김치 500kg은 영주시 지역아동센터 7개소 및 장애인 보호시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 권역의 취약계층 등에 고루 배분됐다.

조욱래 영주시사회적경제기업협의회 회장은 "추운 날씨임에도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모였다"며, "지역과 이웃을 돌아보고 지역과 상생하는 영주시 사회적경제기업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사회적경제기업협의회는 영주시 사회적경제기업들로 구성된 단체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협력해 성금 모금활동을 통한 기부, 지역 공헌활동 발굴 및 수행 등 지역과 상생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정금자/기자

안동시, 올 한해 경제·관광 분야 획기적 도약 '눈길'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KTX 서울역 연장… 경제·관광산업 기틀 세워

안동시가 2023년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10대 시정 이슈를 발표했다. 안동시는 시(市) 승격 60주년을 맞아, 시민의 힘으로 미래 100년 희망의 싹을 틔웠다. 시민의 삶에 기분 좋은 변화를 일구며 부드럽고 강한 대한민국 안동의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특히, 안동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할 바이오산업과 교통·물류의 혁신이 눈길을 끈다. 안동바이오생명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으로 글로벌 바이오 허브로 도약할 비전을 제시했다. 장차, 70여 유망 바이오기업 입주로 8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 3만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예상한다. 또한 중앙선 KTX가 안동에서 출발해 청량리를 거쳐 서울역까지 연장 운행된다. 문화와 관광 및 경제 등 생활인구의 유입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의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한다.

안동의 전통문화가 대한민국 전통문화콘텐츠에 트랜드 변화를 예고했다. 올해 하회마을 만송정 인근에서 개최된 하회선유줄불놀이는 SBS 드라마 '악귀'의 흥행에 힘입어 6번의 공연마다 역대 최다 관람객을 경신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국내외 관광객의 발길이 증폭하는 가운데 하회마을은 사유와 성찰의 정신문화와 재미와 감동이 있는 놀이문화가 어우러지는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높이 평가받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대상'에 선정됐다.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지역대학과의 동반성장 기틀도 마련했다. 국립안동대학교-경북도립대학교가 교육부 글로컬대학에 선정되며 대학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산업의 육성이 동반성장의 선순환 체계로 추진될 것이다. 또한 안동시는 학업장려금 지원, 행정인턴제 도입 등으로 국제적 인재 양성과 일자리 마련을 위한 혁신을 이어갈 계획이다.

안동댐을 보물단지로 만들기 위한 물산업클러스터의 비전을 밝히고, 대구시와 광역상수도 구축을 위한 구체적 실행 로드맵을 발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안동댐을 낙동강 생명수 공급의 전진기지로 삼아 대구를 시작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나아가 부산까지 물을 공급해 낙동강 1,300리로 이어진 이웃 지자체와 상생발전을 다지고, 수자원 연구기관·기업을 유치해 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옛 안동역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는데 성공했다. 옛 안동역사 부지를 축제의 공간으로 개방하면서 단절의 공간에서 남과 북을 잇는 소통의 공간으로 변신하며 원도심 활성화라는 시민의 염원에 한 걸음 다가섰다.

또한, 관내 약 35km의 중앙선 폐선 구간은 복합휴양레포츠가 가능한 핫플레이스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북후면 금계터널에서 일직면 회암터널까지 35km 사업구간을 "중앙선 1942"로 명명하고 사람과 장소가 잇닿은 매력적인 길 등의 테마로 2029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시민과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사업도 진행했다. 기존 낙동강변 물놀이장이 협소하다는 시민 의견을 수렴해 유수풀, 파도풀 등 다양한 물놀이 시설로 확장 개장했다. 또한, 안동 대표 관광지인 월영교와 선성현문화단지는 문체부 열린관광지에 선정돼 소외계층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관광지로 한층 개선될 예정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시민과 손잡고 의회와 소통하며 1,500여 공직자와 함께 미래 먹거리 산업과 청년 일자리를 책임질 기업이 태동하는 대전환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전진해 나아가겠다"라고 맺었다.

1. 중앙선 KTX, 안동에서 서울역까지 달리다! '관광·경제 활성화 기대'

▶ 중앙선 KTX-이음이 안동역을 출발해 기존 종착지인 청량리역을 지나 서울역까지 연장 운행을 시작한다. 경북 북부권 주민들의 최대 숙원 중 하나가 해결됨으로써 문화와 관광 및 경제 등 각종 산업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의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 '안동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후보지 선정!'글로벌 바이오 허브 비전' 제시

▶ 백신·헴프 중심의 바이오 클러스터를 확장한 안동은 '안동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2040년까지 70여 개 기업 입주로 약 4조 원 투자, 8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 3만여 명의 고용 창출을 전망하고 있다.

3. 800년 이어온 옛 풍류 하회선유줄불놀이, 국내외 관광객'인기몰이'

▶ 올해 하회선유줄불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현장 관람하는 등, SBS 드라마 '악귀'의 흥행에 힘입어 올해 6번의 매회 공연마다 역대 최다 관람객을 경신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4. 국립안동대학교 글로컬대학 선정!!'대학과 지역 동반성장 기반 마련'

▶ 국립안동대학교-경북도립대학교가 교육부 글로컬대학에 선정되며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기반이 마련됐다. 시는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의 역점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동대학교와 연결고리를 더욱 강화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혁신을 선도하는 도시로 거듭날 계획이다.

5.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옛 안동역 시민 품으로 돌리고 성공적 데뷔'

▶ 올해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 10개국의 해외 탈춤공연을 비롯한 다채로운 콘텐츠로 8일간 88만여 관광객의 발길을 이끌었다. 이번 축제는 하회별신굿탈놀이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열린 첫 축제이고 옛 안동역 부지를 시민과 관광객에게 개방한 첫 이벤트이기도 했다.

6.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하회마을, 문체부'지역문화대상' 수상

▶ 안동 하회마을이 로컬100 선정에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대상'에 선정되는 겹경사를 맞았다. 하회마을은 사유와 성찰의 정신문화와 재미와 감동이 있는 놀이문화가 어우러지는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높이 평가받았다.

7. 낙동강 수계 광역상수도 공급 추진'안동·임하댐을 보물단지로~'

▶ 안동댐을 낙동강 생명수 공급의 전진기지로 삼아 대구를 시작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나아가 부산까지 물을 공급해 낙동강 1,300리로 이어진 이웃 지자체와 상생발전을 다지고 수자원 연구기관·기업을 유치해 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8. 안동시, 35km 중앙선 폐선 구간 복합휴양레포츠으로 재탄생시킨다!

▶ 안동시 관내 약 35km의 중앙선 폐선 구간이 복합휴양레포츠가 가능한 핫플레이스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북후면 금계터널에서 일직면 회암터널까지 35km 사업구간을 "중앙선 1942"로 명명하고 사람과 장소가 잇닿은 매력적인 길 등의 테마로 2029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9. 안동시, 『낙동강변 야외 물놀이장 확장 개장!』

▶ 안동시가 어린이들의 즐거운 물놀이를 위해 성희여고 앞 낙동강변 둔치에 야외 물놀이장을 확장 개장했다. 기존 물놀이장이 협소하다는 시민 의견을 수렴해 물놀이형 조합 놀이대 1개소와 물놀이 시설 4개, 유수풀, 파도풀, 워터슬라이드 등 12종의 시설과 그늘막, 휴게실을 설치했다.

10. 월영교와 선성현문화단지, 문체부 열린관광지 선정

▶ 안동시 월영교, 선성현문화단지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모한 2024년도 열린 관광지로 최종 선정됐다. 시는 배리어 프리에 걸맞은 관광환경을 조성하고 다채로운 관광콘텐츠를 더욱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윤근수/기자

안동시

예천군, 국가대표 김제덕 선수 인재육성 장학금 5백만 원 기탁 받아

재단법인 예천군민장학회는 26일 8시 대한민국 양궁 국가대표 김제덕 선수(소속 예천군청)로부터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오백만 원을 전달받아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김제덕(예천군청) 선수는 도쿄올림픽에서 혼성 단체전과 남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거머쥐며 2관왕에 올랐고 2021 세계선수권에서도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한 한국 남자양궁의 미래로서 현재 2024 파리 올림픽 출전을 앞두고 있다.

김제덕 선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정진하는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고 싶고 예천 지역의 학생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향해 도전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학동 이사장은 "고향과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역 인재 육성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장학금을 기탁해 준 김제덕 선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김제덕 선수의 마음이 담긴 장학금이 학생들의 꿈을 펼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울진해경, 직원 간 화합을 위한 소통 힐링데이 가져

울진해양경찰서(장윤석)는 22일, 연말연시를 맞아 직원들과 함께 한 해를 정리하고, 호흡으로, 마음으로, 화합으로 소통하기 위한 '숨통·화통·맘통' 힐링데이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진행된 힐링데이는 팀 빌딩 레크레이션 및 힐링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직원 간 유대를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하는 등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실시됐다.

각종 퀴즈 및 게임 등 팀 빌딩 레크레이션을 통해 함께 소통하며 팀워크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으며, 힐링강연 또한,'긍정의 힘'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 긍정적이고 지혜롭게 스트레스를 해소할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강연을 찾은 직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고 전했다.

장윤석 울진해양경찰서장은"고된 현장과 바쁜 업무속에서 심리적 안정과 행복을 찾는 유익한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통하고 화합하는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장문화/기자

영덕군, 2024년 상수도 요금감면 대상 대폭 확대

영덕군은 내년 2월 고지되는 1월 사용분부터 상수도 요금감면 대상을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국가유공자, 고엽제 대상자, 심한 장애인,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로 확대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께 보답하고 사회적 약자와 배려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이뤄졌으며, 출산 장려 시책의 일환으로도 취해졌다.

감면신청은 내년 1월부터 연중 진행되며, 대상자는 각 읍·면이나 물관리사업소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 접수하면 신청서 접수 후 다음 달부터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군 재정이 넉넉지 않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사회적 약자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위한 시책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며, "상수도 요금감면 혜택이 국가유공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어려운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영덕군 물관리사업소는 군민 편의를 위해 상수도 요금 납부 자동이체 시 1% 감면하는 혜택을 제도로 시행하고 있다.

장문화/기자

경북 공공도서관 협력체계 구축… 지역사회 문화플랫폼 역할 강화

도내 공공도서관 협력을 통한 공공성·사회적 역할 강화 다짐

경상북도가 광역 대표도서관인 경북도서관을 중심으로 도내 공공도서관 협력.지원 전략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경북도서관은 지난 21일과 22일, 양일간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시.군 공공도서관, 경북교육청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경상북도 도서관인의 날 기념식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도내 공공도서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과 종사자 사기 진작 등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2019년 경북도서관이 개관한 이래 세 번째로 치러졌다.

코로나 엔데믹 선언으로 개최 규모가 확대된 2022년 워크숍 이후, 올해도 도내 공공도서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념식-워크숍을 연계한 운영 방식으로 행사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했다.

첫째 날은 경상북도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우수도서관 시상 및 도서관 발전·유공자 표창, 경상북도 도서관 퍼포먼스, 2023년 도서관 운영 유공 대통령상을 받은 박상천 제천시립도서관장의 특강과 힐링 콘서트 등 기념식이 열렸다.

둘째 날은 사서들의 고충 의견수렴, 2024년 주요 시책 안내와 함께 박영숙 느티나무도서관장을 모시고 '도서관, 삶을 바꾸고 미래를 여는 지역사회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특강 등 워크숍을 진행했다.

특히, 기념식에서는 경북도서관, 시군 도서관, 경북교육청 관계자들이 함께 소통.협력을 메시지로 한 퍼포먼스를 연출하면서 도내 공공도서관의 균형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를 다짐했다.

한편, 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공공도서관 운영평가를 경북도서관에서 처음 시행해 이날 9개 시군 12개 도서관을 시상했다.

수상한 도서관장들은 "이용자들에게 수준 높은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분야별로 노력해 온 것을 인정받아 기쁘다. 지역사회에서 도서관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만큼 도서관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상현 경북도서관장은 "우수도서관 평가를 통해 도서관 간 선의의 경쟁이 지역 도서관을 발전시키고, 의미 있는 보상으로 도서관인들의 서비스 개발 의욕을 고취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북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공공도서관 간의 협력과 경쟁의 장을 통해 연결 고리를 만들면서 적극적인 지식 경쟁력 확보 전략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윤근수/기자

영양군, 10월 우박피해농가 특별영농자재비 지원

영양군 10월 26일 우박으로 약 250ha의 농작물 피해 발생

영양군은 10월 26일 우박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특별 영농자재비(250백만 원)를 편성 지원했다.

이번 우박은 이례적으로 10월 말에 내렸으며 수확기를 앞두고 있는 과수(200ha)와 배추(50ha)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23년도에는 저온 및 우박, 집중호우, 태풍 등 다수의 재해가 발생하여 이미 많은 농가가 피해를 입었는데 수확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우박피해를 입어 농가의 시름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에 군에서는 농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우박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m²당 100원의 특별영농자재비(3회 추경, 군비 100%)를 편성 지원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지난 재해로 인한 피해가 아직 가시기도 전에 이례적인 시기의 우박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다."라며 "이번 특별지원금이 우박피해 농가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부산시,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추천 접수

적극행정 공직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매년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부산시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통한 일 잘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시민과 함께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우수공무원 선발제도'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통한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공무원을 선발해 파격적인 특전을 부여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확산하기 위해 매년 반기별로 실시하는 제도다.

시는 그동안 총 307건의 우수사례를 발굴해 공유.확산했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73명을 선발해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등 파격적인 인사상 특전을 부여했다.

이번 선발 대상은 올해 하반기 적극행정 추진사례이며, 26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부서 내부 추천과 부산시 누리집 적극행정 코너를 통한 시민 추천을 받은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실적 검증을 거쳐 1차 실무심사, 2차 온라인 심사, 3차 적극행정위원회 최종 심의.의결로 선발한다.

선발된 우수공무원에게는 상장과 부상금이 주어지며, 인사상 특전도 부여된다.

또한 선정된 우수사례는 동영상, 카드뉴스, 사례집 등으로 제작해 공무원과 시민에게 널리 알릴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파격적 혜택을 부여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정 운영에 속도감을 높여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일한 성과는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인식 전환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희태/기자

상주시, 2년 연속 지방규제혁신 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기업과 주민을 위한 규제혁신 우수 지자체 선정으로 특별교부세 2억 확보

강영석 상주시장, "지역기업, 시민들 규제혁신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 분야 규제개선에 앞장,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전액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쓰겠다"고 밝혀

상주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규제혁신 성과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규제혁신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재정성과급 2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이번 평가는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아 2023년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별 중점규제 발굴.개선,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노력도와 지방규제혁신 제도 운영.개선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상주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기초 지방자치단체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장과 더불어 특별교부세 2억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상주시는 부시장 주재의 지방규제혁신TF를 구성, 4회에 걸쳐 규제발굴 회의를 개최하여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발굴과 공무원 규제개혁 역량 강화에 노력한 점 등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앞으로도 민생 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기 위하여 민간위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법령에 근거가 없는 비법규적 수단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기업과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그림자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앞으로도 지역기업과 많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규제혁신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 분야의 규제개선에 앞장서겠으며, 확보된 특별교부세 2억원은 전액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쓰여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대구시 달서천(1구역) 하수관로 정비 BTL사업'순풍에 돛'

민투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에 따른 민간사업자 모집

대구광역시는 '금호강 1급수 프로젝트'의 핵심과제인 하수관로 우·오수 분류화사업 중 달서천(1구역) 하수관로 정비를 민간투자사업(BTL)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확정하고 민간사업자 모집에 나선다.

우·오수 분류화사업은 하수로 인한 침수, 악취 등으로부터 시민안전·건강·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수역의 안정적인 수질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히, 민선 8기 시장 공약사업인 '금호강 1급수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하수관로 정비 민간투자사업(BTL)'은 민간사업자가 선투자해 건설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하수관로 등 시설물은 대구광역시로 귀속되고 사업시행자(SPC)에게 20년간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향후, 시설임대료는 국비 30%를 지원받게 된다.

'달서천(1구역) 하수관로 민간투자사업(BTL)'은 정부고시사업으로 진행 중이며 민간제안사업과 달리 주무관청이 사업을 발굴해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대구광역시는 지난 2022년 환경부 국비사업으로 신청·지정돼 한도액 955억 원(예비비 포함)을 확보했다.

올 5월부터 기본계획용역을 시작으로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 수립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센터(PIMAC)의 검토를 거쳐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원안가결) 및 대구광역시 시의회 동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민간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해 오는 12월 29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사업참여자는 건설·운영의 경험·실적을 보유한 건설법인, 시설운영법인, 재무적투자자 등으로 구성되고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계획했다.

특히,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공 부분은 40% 이상, 운영 부분은 재난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49% 이상으로 결정해 어려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되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는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사업 신청서류를 작성해 대구광역시로 신청하고, 접수된 서류는 1, 2단계로 나눠 평가를 거쳐 내년 5월경에는 우선 협상대상자가 지정될 계획이다.

향후, 실시협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이 완료되면 '25년 공사 착공해 '28년에는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며, 운영은 20년간 반기별 시설운영 성과를 평가해 운영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지형재 대구광역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우·오수 분류화사업은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신천·금호강의 수질 개선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이다"면서,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많은 지역업체가 사업에 참여해 어려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한울본부, 플라스틱 병뚜껑 재활용 놀이키트 전달식 개최

모자보호시설 영신해밀홈에 놀이키트 10세트와 플라스틱 병뚜껑 3,000개 전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는 플라스틱 병뚜껑 3,000개와 재활용 놀이키트 '도도리' 10세트를 울진군 모자보호시설 영신해밀홈(원장 정은경)에 전달했다.

플라스틱 병뚜껑은 지난 달 20일부터 이번 달 17일까지 한울에너지팜에서 시행한 '병뚜껑 업사이클링 장난감 기부 이벤트'를 통해 수집된 것으로, 놀이키트 도도리에 활용하여 장난감을 만들 수 있다.

정은경 영신해밀홈 원장은 "한울본부 덕분에 연말에 아이들과 함께 병뚜껑 재활용 놀이키트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라며 "한부모가족을 위한 한울본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에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앞으로도 한울본부는 지역과 동행하는 청정에너지 기업으로써 친환경 의식을 고취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시행할 예정이다.

윤근수/기자

청송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회 개최

청송군농업기술센터는 12월 22일 시범사업 농가, 농업인단체 회원, 관련 공무원과 함께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회를 가졌다.

이날 진행된 평가회에서는 올해 농촌지도사업 성과보고와 시범사업 우수사례 발표, 사업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의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청송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3월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 5개 분야 37개 사업에 52억원을 투입해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했다.

주요 지도사업 성과로는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지원 △농촌체험 및 사과가공지원센터 운영 △농기계임대 및 농작업대행단 운영 △농·축산물 안정생산 기반조성 △농산물품질관리센터 운영 △고추 완성묘 보급과 고추 종자대 지원 △스마트 경영시스템 및 스마트팜 구축 △미래지향적 청송사과 재배시스템 구축시범 △청송황금사과 연구단지 조성 △영농현장애로해결 시범사업 등이 추진됐다.

이번 종합평가회를 통해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보완사항을 도출하여 내년도 사업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실증과제 추진 결과 우수한 사업은 점차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종합평가회를 계기로 농업인들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지도사업이 무엇인지 평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며, 앞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영등포구, 빗물펌프장 직원들 24년째 취약계층의 '안전 지킴이'로 나서

각종 잔고장, 집안 불편사항도 해결…안전 ·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써

영등포구가 빗물펌프장 직원들이 취약계층을 찾아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생활 속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재능기부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기습 폭우와 씨름했던 빗물펌프장 직원들은 수해 업무가 마무리되는 겨울철마다 어려운 이웃들의 안전을 살피고 있다. 2000년부터 시작했던 재능기부 활동은 벌써 24년째 이어지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지역 내 빗물펌프장 8개소의 직원 20명은 지역사회와 이웃들의 '안전 지킴이'로 나선다. 오전에는 배수펌프, 자동제어 설비 등의 시설물을 정비하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오후에는 4개 조로 나눠 12월 5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어려운 이웃을 찾아 전기·기계 설비의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안전점점 대상은 생활 여건이 어렵거나 고령으로 집 안의 안전을 신경 쓰지 못해 각종 사고에 노출되기 쉬운 독거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70여 가구와 경로당,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40곳이다.

직원들은 전기·소방·보일러의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인 만큼 전등, 전기기구, 콘센트, 소방시설, 보일러 등을 꼼꼼하게 점검한다. 점검 결과 잔고장이나 경미한 문제는 직접 보수하거나 교체하고,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한 경우 전문 업체를 통해 조치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아울러 옥탑방의 계단과 욕실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부착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힘쓴다. 방문 손잡이 교체, 방충망 보수, 수도꼭지 수리와 같이 집안에서 발생하는 소소한 불편사항도 해결한다.

빗물펌프장 관계자는 "가정을 방문해 점검을 하다 보면 형광등 교체를 하지 못해 어둡게 지내시는 어르신들이 많다. 간단한 수리이지만 고마움을 표현해 주시는 어르신들의 표정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여름철 수해 예방에 힘써온 직원들이 겨울에도 쉬지 않고 취약계층과 지역의 안전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이 자랑스럽다"라며 "겨울철에는 각종 화재와 동파 사고 위험이 많은 만큼,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라고 전했다.

박황신/기자

성동구를 빛낸 10대 뉴스는...1위 반지하 주거환경개선사업 선정

반지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이어 2위 산책로 범죄예방시스템 구축, 3위 스마트 제설시스템 운영이 차지

서울 성동구가 올해 추진한 주요 사업 중 주민들에게 가장 공감받은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10대 뉴스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는 민관 협업을 통한 '성동형 반지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영광의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022년 여름 폭우가 내린 이후 전국 최초로 시작한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에 이어 침수방지시설 설치와 위험거처 지원 조례 제정 등으로 주민들의 지지를 얻었다. 이어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산책로 범죄예방 시스템 구축'이 2위를 차지했다. 잇따른 이상동기 범죄에 스마트폰을 실시간 CCTV로 활용한 정책으로 주민 안전에 대한 성동구의 아이디어가 빛났다.

이어 자동염수분사 장치와 도로열선 등 스마트 제설시스템 운영이 3위를 차지했다. 갑작스러운 폭설과 도로 결빙에 대비하여 급경사지 등에 도로열선을 확대 설치하고 열선 설치가 어려운 곳은 자동염수분사 장치를 설치해 똑똑한 제설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다음으로는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가 행복한 공간인 성동형 스마트흡연부스 설치가 4위를 차지했다. 성수동에 시범 설치한 이후, 한 해 평균 170건이었던 민원이 사라지고 이용자와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5위는 지난 10월 옛 삼표 부지에 개장한 성수문화예술마당으로, 공연장 부지와 공영주차장, 잔디마당 등을 조성하여 약 2년간 성동구가 임시 활용할 예정이다.

그 외 ▲6위 교통시설물 개선으로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7위 마장 먹자골목 상인 안심상가 이전 ▲8위 문화산업창조축제 '크리에이티브×성수'로 스마트문화도시 도약 ▲9위 발달장애인 특화 '와글와글'도서관 개관 ▲10위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확대 정책들이 차례로 이름을 올렸다.

올해의 10대 뉴스는 성동구민과 성동구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됐다. 성동구 주요 정책 20개 중 1인당 최대 5개 사업까지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총 9,330표의 참여를 이끌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올해 10대 뉴스로 구민의 일상에 편의를 더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끈 정책의 결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주민들에게 공감을 받은 정책을 토대로 다가오는 갑진년 새해에도 누구도 소외 없이 포용할 수 있는 따뜻한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나 홀로 집에' 대신 음악과 함께...서울 중구, 1인 가구 위한 송년 음악회 개최

피아노트리오, 소프라노 협연으로 클래식, OST, 탱고 등 다채로운 레퍼토리

서울 중구가 오는 31일 명동아트브리즈에서 1인 가구를 위한 송년 음악회를 연다.

연말을 맞아 '나 홀로 집에' 대신 함께 음악을 감상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공연은 명동아트브리즈에서 31일 22시 30분부터 피아노 트리오와 소프라노 협연으로 진행된다. 클래식부터 OST, 탱고 등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준비해 관객 모두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모차르트의 작은 세레나데를 시작으로 캐리비안의 해적, 하울의 움직이는 성, 해리포터, 겨울왕국 등 친숙한 OST 음악과 피아졸라의 리베로 탱고, 오페라 카르멘의 하바네라 등 낭만적인 선율이 펼쳐진다.

중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라면 누구나 사전 신청을 통해 무료로 음악회를 관람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 및 공연 신청은 명동아트브리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는 1월에는 새해를 맞아 명동아트브리즈에서 1인 가구를 위한 새해 '꿈이룸 명상 & 요가'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새해 목표와 비전을 적은 미래 보드를 만들고, 함께 싱잉볼 명상과 요가를 하며 과거와 미래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명동아트브리즈는 지난 11월 명동에 개관한 K-컬쳐 복합문화공간으로 소규모 공연장과 갤러리를 갖춰 연중 다양한 공연·전시를 기획하고 있다. 댄스 스튜디오, 유튜브 스튜디오, 프로그램 실에서는 각 분야 최고의 강사진이 케이팝 댄스, 민화 교실, 명상 수업 등 K-컬쳐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앞으로도 1인 가구를 위한 든든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명동아트브리즈에서는 내년에도 1인 가구를 비롯한 주민을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강성원/기자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성장률 3.0%, 지역총소득 증가율 전국 2위

2022년 도 경제성장률 3.0%(전국 2.6%), 숙박 · 음식점업 등 서비스업 호조 영향

2022년 경제성장률 3.0%, 숙박·음식점업 등 호조로 전국 성장률 상회

강원특별자치도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지역소득통계 잠정결과를 분석한 결과, 2022년 도 경제성장률은 3.0%로 전국 평균 경제성장률(2.6%)을 0.4%p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17.1%↑)과 사업서비스업(8.8%↑) 등 서비스 부문이 경제성장을 주도했다.

지역총소득 증가율 전국 2위, 1인당 개인소득 증가율도 전국평균 상회

도 지역총소득은 50조7천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4천억원(7.2%) 증가했다. 도 지역총소득 증가율은 전국 증가율(4.3%)을 크게 상회했고, 17개 시도 중 세종(7.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지역총소득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지역소득 유출규모는 2021년 3조9천억원에서 2022년 1조9천억원으로 2조원 감소했다.

도민 1인당 개인소득은 2,239만원으로 전년보다 147만원(7.0%) 증가했는데, 전국 17개 시도 중 11번째, 9개도지역 중 4번째 수준을 보였다.

1인당 개인소득 증가율은 전국 평균 증가율(6.0%) 보다 1.0%p 높은 수준으로, 전국 평균 1인당 개인소득과의 차이도 2021년 114만원에서 2022년 100만원으로 격차를 좁혔다.

지역내총생산 52조5천억원(2.6%↑), 1인당 GRDP는 3,443만원(2.2%↑)

2022년 도 지역내총생산은 52조5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3천억원(2.6%)이 증가했고,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3,443만원으로 전년보다 75만원(2.2%) 증가했다.

도내 산업구조는 농림어업 5.1%, 제조업 9.8%, 건설업 8.8%, 서비스업 76.2%이며, 전년과 비교하면 서비스업은 3.4%p 비중이 확대됐고, 건설업(0.9%p↓)은 비중이 축소됐다.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 일자리 확대로 도민 소득 증대 지속 추진

2022년 도 경제성장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지역총소득이 큰 폭의 증가를 보인 것은, 지난해 하반기에 우리 도를 찾는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면서 숙박·음식점업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지역 경기가 회복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하반기 도에서는 코로나19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따른 도내 관광객 유입을 대비해 주요 관광지에 대한 점검과 다양한 손님맞이 준비를 철저히 했으며 이러한 준비가 지역 관광 활성화와 지역 소득 창출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역 경제성장을 위해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특화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 일자리 확대를 통한 고용안정과 도민 소득 증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등원/기자

박경귀 아산시장 "'지중해 마을' 크리스마스 명소로 만들 것"

'아트밸리 아산 2023 지중해 마을 크리스마스 축제' 개최

아산시 탕정면 지중해 마을에서 23일 '아트밸리 아산 2023 지중해 마을 크리스마스 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성탄 연휴를 맞아 열린 이번 축제에는 가족 단위 시민들과 관람객 3000여 명이 찾아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만끽했다.

특히 박경귀 아산시장은 산타로 깜짝 변신해 아이들과 거리 인사 및 사진 촬영을 해 호응을 얻었다.

박 시장은 "탕정 지중해 마을은 대한민국에 유일한 지중해풍의 건물을 갖춘 멋지고 아름다운 공간이다"라며 "아산시는 지중해 마을에서 매년 성대한 크리스마스 축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중해 마을은 곳곳에 예쁜 카페와 맛있는 식당도 많다. 모두 즐겁고 아름다운 추억을 쌓길 바라며 내년 청룡의 해에도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축제는 사연 신청을 통해 산타가 선물을 대신 전달해 주는 '산타 대행사'가 진행됐다. 박 시장도 이 프로그램에 동참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 합창 공연, 팝페라 팀 '보갓'의 캐롤송 공연, '이초롱 재즈트리오'의 재즈 공연도 이어졌다.

이 밖에도 회전목마, 토마스 기차 등으로 꾸며진 미니 놀이공원, 무인 셀프 포토부스, 트리 만들기 체험, 부모와 함께하는 3D 펜 아트 체험 등을 운영해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한편 이번 축제가 끝난 후에도 인스타그램 '아산 산타(asan_santa)'를 통해 촬영한 사진을 공유하는 이벤트가 이어진다.

김원호/기자

충남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공보관 김근태 주무관 등 6명 선발…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충남도는 공보관 김근태 주무관 등 6명을 올해 하반기 국민·부서추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국민·부서 추천을 받은 후보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부심사 및 직원투표를 진행하고, 도 적극행정위원회가 최종 심의·의결해 확정했다.

선발된 공무원은 △공보관 김근태 주무관 △공공기관유치단 박준현 주무관 △세정과 정영준 주무관 △기업지원과 조정희 입지계획팀장 △탄소중립정책과 고완배 생태환경팀장 △해양정책과 권민식 해양레저관광팀장이다.

김근태 주무관은 적극행정을 통해 국비 반납 위기를 딛고, TBN 충남교통방송국을 유치해 충남혁신도시 지정 후 첫 공공기관을 유치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준현 주무관은 전국 최초 공공기관 합동임대청사 건립 추진, 정영준 주무관은 새로운 징수기법 도입을 통한 지방세 체납액 역대 최고 징수 실적 달성, 조정희 입지계획팀장은 전국 최대 규모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최종 선정 공로를 인정받았다.

고완배 생태환경팀장은 도 자연 생태 회복력 복원을 위한 선도적 시책 추진, 권민식 해양레저관광팀장은 1조 1237억원,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신기원 개척에 기여했다.

도는 개인 희망을 고려해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부여할 예정이다.

김영관 정책기획관은 "도민의 입장에서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깨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적극행정이 추진되고 그 공적자가 우대받을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김영환 충북도지사, 안철수 의원과 조우

12월 22일 청주SB플라자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9회 바이오 의과학 실험경연대회 시상식에서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안철수 의원이 조우했다.

안철수 의원은 수상자들에게 반도체 나노테크놀로지 기술을 활용한 화이자 백신, 모더나 백신 등 개발 사례를 예로 들면서, "가능성이 무한한 21세기 시대에 살고 있는 만큼 다양한 꿈을 이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영환 도지사는 "우리나라 의사과학자 1호로 일컬어지는 안철수 의원의 시상식 깜짝 방문은 수상자들에게 더욱 특별한 의미가 됐다"며, 안철수 의원에게 감사를 표했다.

김영환 지사는 의대정원 확대 국회토론회 참석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길에 바이오융합원에 들렀다가 안철수 의원과 조우한 것으로, 최근 국내정세 등에 대해 30여분간 논의하고, 서울로 이동했다.

고정화/기자

속초시, '2024 속초 새해맞이 행사' 개최

갑진속초, 갑진새해, 속초 미래100년 새해를 맞이하다

속초시가 갑진년 '푸른 청용의 해'를 맞아 오는 12월 31일 저녁 8시부터 엑스포 잔디광장에서 2024년 속초 새해맞이 행사 '갑진속초, 갑진새해'를 개최하고 1월 1일 새해 아침 6시 30분에는 속초해수욕장 야외무대 일원에서 해맞이 공연을 연계 행사로 진행한다.

속초시는 지난 한 해동안 힘차게 달려온 속초시민과 방문객들을 위로하고 희망의 새해를 응원하는 새해맞이 행사를 위하여 지역예술인 공연과 체험, 불꽃놀이, 새해 카운트다운 퍼포먼스 등 다채롭고 풍성한 행사를 준비했다.

20시부터 시작하는 체험부스에서는 새로운 시 캐릭터 '짜니와 래요' 홍보 이벤트, 감사 인사 챌린지, 타로·캐리컬처·소원쓰기, 룰렛이벤트 등이 예정되어 있으며, 공연으로는 속초 시립풍물단의 사물놀이, 다양한 장르별 음악공연과 속초시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대동놀이로 힘찬 새해를 여는 신명 나는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속초시 청용과 황용의 전설로 잘 알려진 청초호에서 청용의 기운을 품고 펼쳐지는 청용·황용 퍼포먼스와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속초 사자놀이'는 행사장을 방문하는 속초시민과 관광객들의 많은 관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새해를 다 함께 한마음으로 외치는 새해 카운트다운을 마련하고 이어서 밤하늘에 화려하게 펼쳐지는 불꽃놀이로 새해맞이 행사를 찾을 속초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즐거운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행사장에는 야간관광과 어우러진 2024 새해맞이 빛 조형물과 포토존, 소망·덕담 카드 달기 소망·덕담존도 다양하게 조성된다.

속초시는 안전관리대책 수립과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차량 및 인력을 행사장 내 배치하고, 자원봉사자 또한 30여명이 투입하여 행사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1월 1일 6시 30분부터는 속초해수욕장 야외무대 일원에서 해맞이 방문객을 위한 '갑진속초, 갑진새해' 해맞이 공연으로 오케스트라 및 풍물·대북 공연을 진행한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속초미래 100년을 위한 2024년 새해맞이 행사를 통하여 시민 화합과 행복을 기원하고, 속초시를 방문한 관광객과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가운데 추억할 수 있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등원/기자

태백시, 문곡소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행복한 김장김치 나눔 행사' 개최

태백시 문곡소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1일 관내 취약계층 가구에 김장김치를 전달하는 '행복한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복한 김장김치 나눔 행사'는 문곡소도동 관내 취약계층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협의체 위원 및 통장협의회 통장들이 직접 김치를 담궈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등 주위의 이웃을 살피고자 마련됐다.

심상운 문곡소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연말을 맞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전하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라며,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주변 이웃들이 겨울을 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용은 문곡소도동 동장은 "이번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통해 홀로 생활하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김장김치를 준비할 수 없는 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도록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여 나눔을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상근/기자

원주시, 저소득·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우수기관 선정

원주시는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저소득·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우수기관에 선정돼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정인영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횡성지사장은 원주시청을 방문하여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대신해 원강수 원주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원주시는 2006년 조례를 제정해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원주시에 주소를 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 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 요양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이후, 최저보험료 인상과 대상 세대의 대폭 증가로 시는 평균 6,300세대에 매월 약 7천 5백만원, 올해 총 9억 1천만 원을 지원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건강보험료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어려운 주민들의 건강수급권을 보호하고 원주시민 모두가 건강한 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정환/기자

경남도, 올해 재난취약시설 집중 안전점검으로 도민 안전에 앞장서

올해 정기·수시점검으로 재난취약시설 690여 개소 표본점검 실시

경상남도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 한해 690여 개소의 재난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정기.수시 표본점검을 추진하여, 2,200여 개의 지적사항을 확인하고 시정과 개선권고 등의 조치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시설물은 연간 점검계획에 따라 다중이용 건축물, 옹벽·사면, 문화재, 어린이놀이시설, 운행정지 승강기, 출렁다리·집라인·케이블카·모노레일, 소규모 교량을 대상으로 추진했다.

특히 올해는 성남 정자교 붕괴사고로 사회적 쟁점이 된 한쪽 끝이 고정되고 다른 끝은 받쳐지지 않은 상태의 캔틸레버 교량 전수점검과 건축공사장 추락사고 예방점검을 추진했고, 그 외에도 골프장, 농어촌 민박을 신규로 점검하는 등 근로 환경부터 여가생활 환경까지 안전관리의 범주를 확대했다.

도 안전관리자문단과 합동점검 추진으로 안전점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소규모 재난취약시설의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전기 및 가스시설 자체점검 요령에 대해 안내함으로써 안전문화 조성에도 기여했다.

경남도는 관리주체와 시군 등의 현장 의견을 듣고 재난취약분야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중앙부처 소관부서에 건의(야영장 분야 2건, 승강기 3건, 건축공사장 1건, 축제(행사) 3건, 물놀이 3건)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쳤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분기별 이행실태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내수면 물놀이 지역 안전관리를 위해 5월 사전점검을 시작으로 안전대책 이행실태 점검, 지역 전담관리제 운영 등 빈틈없는 수시·불시점검 추진으로 사망사고 '0' 목표를 달성했고, 도내에서 3번째로 물놀이 지역이 많은 하동군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대통령 개인표창 대상으로 선정되는 성과도 거두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올 한해 안전관리의 핵심과제인 지역축제 및 옥외행사는 지난 2월 '경상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면 개정으로 주최자 없는 옥외행사 안전관리 계획 수립을 도지사의 책무로 명시하고, '2023년 지역축제 및 옥외행사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 안전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안전관리 방안에는 행사장 내 1시간 동안 참여인원 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안전관리계획 사전검토, 현장점검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3월 행정부지사 주재 '지역축제 및 옥외행사 안전관리 대책회의'에서는 시군 부단체장, 관련 부서장, 경남경찰청 자치경찰부장 등이 참석하여 개최 예정인 주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사전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도 구축한 바 있다.

또한 정월대보름·어린이날 등 크고 작은 인파밀집 우려 행사에 대해서는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연중 행사가 가장 집중된 10월에는 인파밀집 안전관리 대책기간을 운영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 최소화에 기여했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올 한해 '선제적 예방이 최선의 대응'이라는 목표로 안전점검 업무를 추진했고, 시군 및 유관기관을 비롯해 도민 모두의 노력이 모여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었다"라며, "내년에도 촘촘한 안전점검으로 도민 생활안전에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재현/기자

전북도, 동절기 대비 장애인 거주시설 안전점검 실시

도내 장애인거주시설 72개소 대상 도·시군 합동점검 추진

전북도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관내 장애인시설에 대한 동절기 안전점검을 일제히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폭설 및 한파와 같은 자연재해 대비상태를 비롯해 동절기 관리를 기울여야 할 소방·전기·가스등에 대한 유지관리 실태와 안전관리 대책 등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된다.

겨울철 안전사고를 예방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 72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장애인 안전보호를 위해 한파주의보 등에 예의 주시하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 방법은 시설자체점검을 시행한 이후에 전북도와 시군이 전체 거주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맞물려 시설종사자의 인식도 눈에 띄게 적극적으로 변화하는 만큼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시설종사자의 자체점검능력도 향상해 나갈 계획이다.

서문연 전북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동절기 안점점검과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민관합동점검을 통해 장애인시설의 취약부분을 파악하고 장애인 거주시설의 기능보강사업비 지원을 통해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서울시, 드론·인공지능 띄운 상공에서 첨단교통관리…교통량 분석·안전 분야 활용

드론으로 공사중 도로점용 이행실태 조사하여 정교하고 안전한 운영 및 관리

서울시가 드론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인공지능(AI) 기반 교통관리시스템으로 혁신적인 교통상황 관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제는 하늘에서 촬영한 드론영상으로 ▲ 실시간 교통상황을 관제하고 ▲ 정체구간의 교통량 분석 ▲ 공사장의 도로점용 현황 파악 등을 수행하여 '보다 안전하고 고차원적인 교통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시는 올해 9월부터 다수의 드론 비행 실증을 수행하여 실시간 교통상황 관리와 혼잡 개선의 활용 가능여부를 파악했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상공에서 신속하게 교통상황을 파악하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한 분석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도로교통의 효율적인 운용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인파가 몰리고 차량이 통제되는 교통상황을 관제하기 위해 지난 가을에는 각종 행사 및 인파밀집 역사 주변으로 드론을 띄워 교통관제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가시권에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역까지 확인하여 안전한 교통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특히, '서울세계불꽃축제' 행사로 인한 인파밀집 및 주변 도로상황을 드론을 활용해 실시간 관제했으며, 핼러윈 기간에는 교통관제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로 관측이 어려운 홍대입구역, 성수역 상공에 드론을 띄워 차량과 인파 이동을 확인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했다.

내년부터는 드론영상을 서울시 관련 기관(서울시 및 서울시설공단, 서울경찰청 등)에 실시간 연계하여 다양한 기관에서 드론 영상을 실시간 모니터링에 활용하고,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보다 안전하고 고차원적인 교통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지면에 설치된 검지기나 인력을 활용해 파악하여 실시간 활용이 어려웠던 교통량 정보도, 영상을 자동으로 측정·분석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 교통상황 분석 및 교통 문제를 파악하는 등 교통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적 근거, 분석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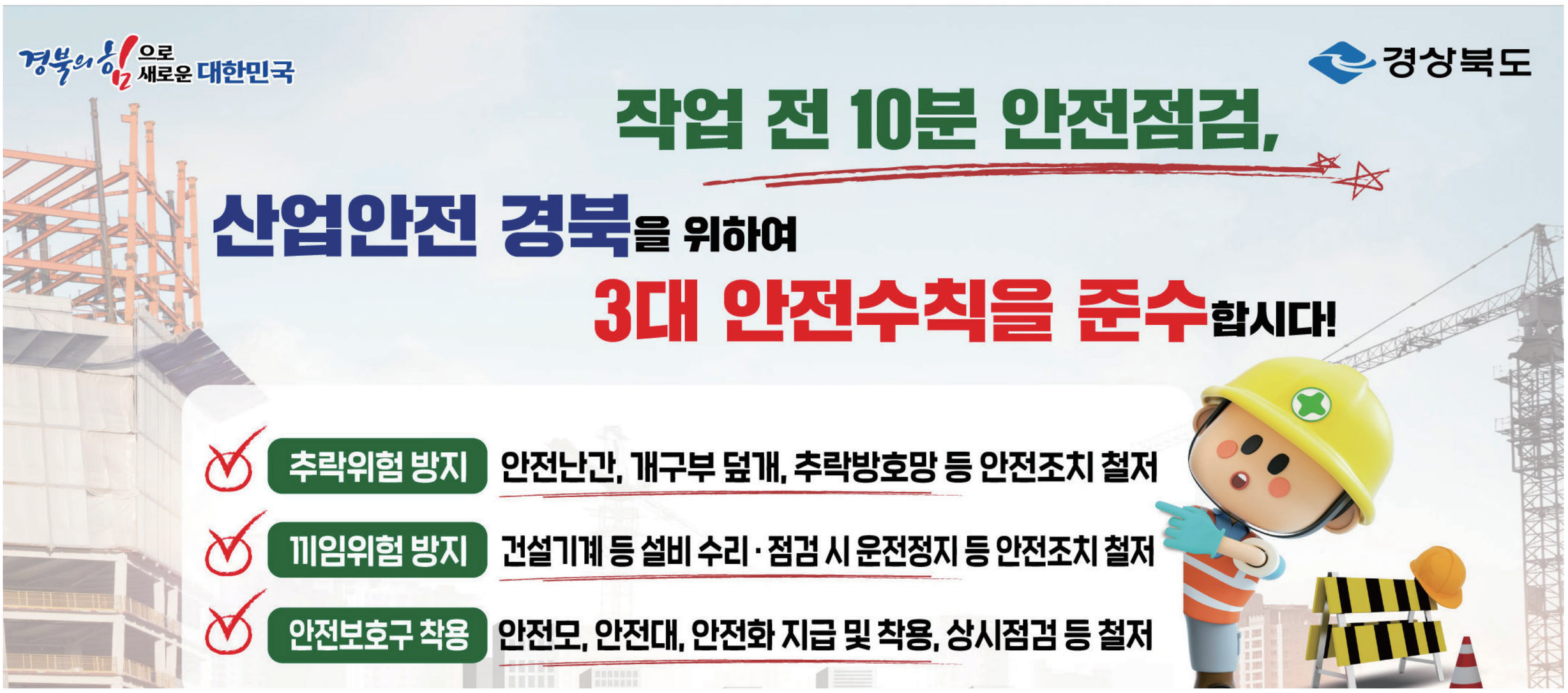
막대한 인력과 비용이 발생했던 과거와 달리 드론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교통관리시스템의 운용 및 자동화를 통해 편리하고 효율적인 분석으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공사장 주변으로 발생하는 시민의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수행하는 도로점용 공사장 점검에도 드론을 활용한다. 드론 영상으로 도로 과점용, 규정 위반 사항 등 이행실태를 분석하고 빠르게 조치하여 더 나은 이동환경 제공을 위한 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영상과 실제 사업의 교통소통대책 설계도면 비교를 통해 도로점용 실태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위반사항을 조치하고, 조사인력이 현장에 나가서 일일이 확인하던 사항을 드론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점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인공지능, 드론 기술과 같은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선진적으로 서울시의 교통상황 관리 능력을 한단계 높이고, 빠르고 정확하게 교통정보를 습득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경북교육청, 학생 연구 활동 성과 발표의 장 마련

제19회 미래 과학자양성프로그램과 학생 SW-AI 인재 양성 프로젝트 성과 발표회

경북교육청은 지난 23일 구미코에서 미래 과학자양성프로그램 45팀과 학생 SW-AI 인재 양성 프로젝트 30팀 등 총 75팀의 학생과 지도교사, 지도교수, 자문위원, 학부모 등 6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9회 미래 과학자양성프로그램과 2023년 학생 SW-AI 인재 양성 프로젝트 성과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미래 과학자양성프로그램'은 초·중·고 학생과 지도교사, 지도교수, 자문위원이 팀을 이루어 과학, 수학, 환경, 산업, 에너지, 메이커(I&D) 분야에서 연구 주제를 선정해 9개월간 학생들이 직접 연구 활동을 진행하는 교육사업이다.

2005년에 시작해 19년째 운영되고 있는 경북교육청만의 특색 사업으로 2023년까지 학생 1,466명이 연구 활동에 참여했다.

'학생 SW-AI 인재 양성 프로젝트'는 초·중·고 학생과 지도교사, 자문위원이 팀을 이루어 SW, AI, 프로그램(앱) 개발 분야에서 연구 주제를 선정하여 9개월간 학생들이 직접 연구 활동을 진행하는 교육사업이다.

2021년에 시작하여 3년째 운영되고 있으며, 2023년까지 학생 399명이 연구 활동에 참여했다.

이번 성과 발표회에서는 75개 연구 포스터 발표 부스를 설치해 발표회에 참여하는 사람들 누구나 학생 연구 성과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학생들이 연구 성과물을 여러 사람과 마음껏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공계 분야에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아이캡틴 김현철 대표이사를 초청해 '성공적인 이공계 시작을 위한 전략 및 마인드셋'이라는 주제의 강의로 연구와 창업 과정의 에피소드, 성공적인 이공계 진로를 위한 마인드셋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학생들의 융합적 사고력과 실생활 문제해결력을 함양하기 위해 학생 연구 활동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학교 자율 운영제 융합 과제 연구 동아리를 신설하고, 도내 대학과 연구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연구 전문 인력풀도 구성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학교 현장 연구 중심의 프로젝트로 이공계 분야에 관한 탐구 능력과 연구 방법을 익히는 미래 과학자양성프로그램과 학생 SW-AI 인재 양성 프로젝트에 학생과 교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프로그램으로 연구 활동에 참여한 모든 학생이 미래 사회에 꼭 필요한 연구자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하며, 경북교육청은 이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윤근수/기자

모두가 행복한 크리스마스

청송초, 통합학급 어울림의 날 실시

청송초등학교는 지난 22일(금), 통합학급에서 통합학급 어울림의 날을 실시하였다. 이번 어울림의 날은 특수교육대상학생과 일반학생들이 어울려 활동함으로써 교우관계를 개선하고 특수학급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계획되었다. 또한, 한 해 동안 특수교육대상학생을 배려하고 함께 해준 통합반 친구들 모두 서로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통합학급 어울림의 날에는 '모두가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크리스마스 보틀 케이크 만들기, 포토존에서 사진 촬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를 높였다. 짝꿍과 함께 협력하여 순서에 맞게 케이크를 만들고 친구들과 함께 사진을 남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활동에 참여한 지현우 학생은 '올해는 점심시간에 특수학급에 자주 가서 놀았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일년 동안 사이좋게 지냈던 친구들한데 고맙고 앞으로도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허영희 교장은 '물리적 통합을 넘어서 일반학생과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잘 어울려 지낼 수 있는 사회적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통합학급이 함께하는 행사를 자주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영덕교육지원청·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영덕후원회, 2023 영덕후원회 산타원정대 행사 운영

영덕교육지원청은 12월 21일 영덕교육지원청 초연관에서 경상북도교육청 임종식 교육감, 교육장, 김동희 부군수, 손덕수 군의장, 김은희 영덕군의회 의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영덕후원회장, 유승희 아동청소년팀장 외 영덕교육지원청 및 영덕후원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산타원정대 후원금 전달 및 아동들을 위한 선물 배송을 위해 2023 영덕후원회 산타원정대 행사를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영덕후원회와 함께 개최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영덕후원회 산타원정대 선포식을 시작으로 임종식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님의 축사와 함께 영덕 관내 학생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을 배송했다.

윤인한 교육장은 "내년에도 교육지원청과의 협력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문화/기자

경북교육청, 작지만 특별한 복식학급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다

경북교육청은 매년 학생 수 감소로 소규모 학교가 증가하는 가운데 복식학급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복식학급을 지원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복식학급은 발달 수준이 다른 2개 학년 학생을 한 학급으로 편성.운영하는 학급으로 교사의 수업 부담 가중, 학습 지도 시간 부족 등으로 학생의 학습과 학급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고자 경북교육청은 지속해 복식학급 편성 기준을 완화해 올해에는 두 개 학년 5명 이하로 기준을 낮춰 현재 105교에 150개의 복식학급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38교에 42명의 복식학급 협력 강사를 지원(4억 2,000만 원)해 담임교사와 함께 복식학급 학생들의 맞춤형 개별학습을 돕는 등 복식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복식학급 담임교사를 위한 교육과정과 수업, 학급경영 등 복식학급 운영 전반의 내용을 담은 자료집 '복식학급 운영 길라잡이'를 개발.보급하여 복식학급 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장점을 살려 복식학급을 특별한 배움과 소중한 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복식학급 담임교사의 역량 강화 연수회를 통해 복식학급 경험이 풍부한 교사의 수업과 학급경영의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복식학급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의 장도 마련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생 수가 적어 복식학급으로 편성되지만, 장점도 가진 특별한 학급이다"라며 "소규모 복식학급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다양한 지원으로 교수.학습의 질을 높여 교육 격차를 해소토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부산시교육청, 효율적인 학교 시설물관리·산업재해 예방 업무 지원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쓱 읽어도 싹 이해되는 학교 시설물 관리·산업재해 예방 활동 365+' 매뉴얼을 배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매뉴얼은 학교 현장의 효율적인 시설물관리와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부산교육청은 업무 성격이 유사한 학교 시설물관리와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영역별·시기별로 정리해 매뉴얼을 제작했다.

복잡한 법규와 지침을 현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업무 절차, 내용, 근거, 유의 사항, 과태료 등으로 정리했다. 또, 시기가 유사한 업무를 캘린더 형태로 요약 안내하고, 서식도 함께 담아 각종 점검 관련 업무 부담을 줄여준다.

학교 시설물관리 파트는 ▲학교 시설물 유지점검 ▲위탁 용역 ▲어린이 활동공간 위해성 관리 ▲주요 하자보수 관리 ▲재난 관리 등을, 학교 산업재해 예방 활동 파트는 ▲근로자 관리/시설물관리 시 산업 안전 보건 업무 ▲계약 업무 추진 시 산업 안전 보건 업무 등 내용을 담았다.

특히, 현장에서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E-BOOK 형태로도 제작했고, 시교육청 '부산학교지원서비스(BSSS)'에도 자료를 탑재했다.

김희태/기자

2023년 12월 학교관리자 회의 개최

윤인한 교육장,"금년도는 관내 교장, 교감, 교직원들 도움으로 교육 성과가 풍성, 2024년도에도 영덕교육발전 위해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함께 협력하자."고 밝혀

영덕교육지원청은 지난 21일(목), 22일(금) 영덕교육지원청 초연관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관리자 29명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 학교 관리자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 21일(목)에 교감선생님, 22일(금) 교장선생님을 모시고 실시하였으며, 2023학년도를 정리하는 상황에서 교직원들의 복무 철저 및 예산 집행완료, 2024년도에 새롭게 진행되는 사업등을 안내하였다. 특히 2024년도에는 영덕육지원청이 미래교육지구로 선정됨에 따라 이에 대해 학교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윤인한 교육장은 "2023학년도는 관내 교장, 교감선생님들과 교직원들의 도움으로 영덕교육 성과가 풍성하였으며, 2024년도에도 영덕교육발전을 위하여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함께 협력하자."고 말했다.

장문화/기자

영양군 YEONGYANG-GUN
www.yyg.go.kr
영양 들여다보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ZOOM
들여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아온 영양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_일월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신계곡, 침벽공원, 측백수림, 외씨버선길
• 영양의 역사_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_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생화공원, 영양풍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양양산촌생활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이천시, 1,000억 원 규모 투자유치 성공…지역경제 활기

이천시는 22일 백사면 조읍리에 소재한 ㈜재현인텍스 공장의 증설승인을 통하여 약 1,000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성공했다고 밝혔다.

금번 증설승인을 통하여 기존 공장부지에 약 1만 5천m²의 공업용지를 추가로 조성하고 공장건물은 약 7만m²를 신축하여 260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게 될 예정이다.

이천시에서 투자유치한 ㈜재현인텍스는 1983년 설립된 이래로 목재문, 문틀, 몰딩, 창호를 전문적으로 생산해오고 있으며, 현재는 40년의 생산 및 개발 전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친환경 자재의 종합 인테리어 솔루션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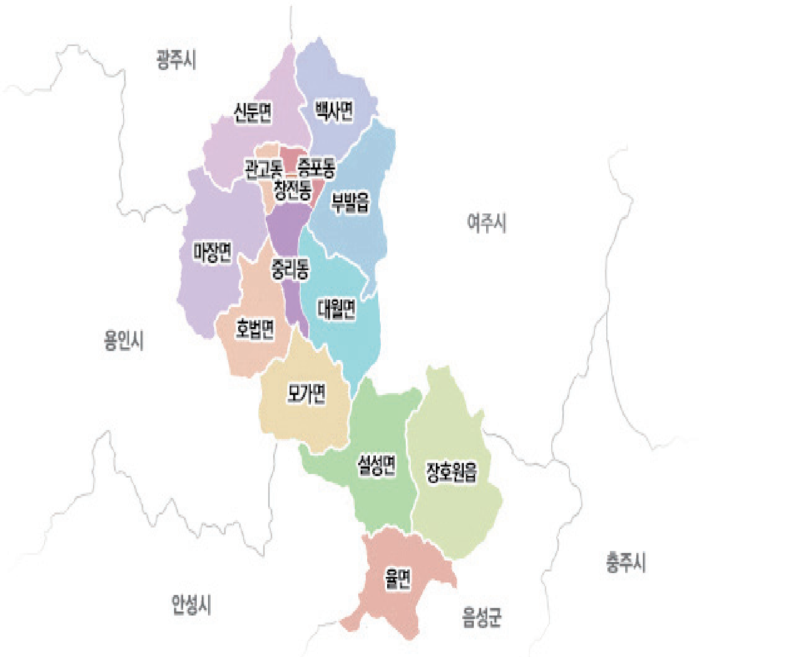
현재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과 광주시 초월읍에 각각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재현인텍스는 공장 운영의 효율성 증대,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제품 생산 및 스마트 팩토리 실현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8년부터 광주공장을 이천공장으로 확장.이전하고자 사업을 추진해 왔었다.

하지만, 공장 이전계획이 처음부터 술술 풀렸던 것은 아니다. 일반산업단지로 추진하던 최초의 사업계획이 수도권 규제의 난관에 부딪히기도 했으나 이천시와 ㈜재현인텍스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틈새 아이디어를 찾아낸 결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침내 투자유치라는 큰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

그래서 이번 ㈜재현인텍스의 증설승인은 각종 수도권 중첩규제 속에서도 불구하고 민.관이 서로 협업하여 해결방안을 찾아 투자유치를 실현한 우수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김 시장은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경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천시에 투자를 결정해 주신 기업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들이 입지와 관련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더 세심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서울시, 청년취업사관학교 1,527번째 취업자 탄생·· 2024년에 기업 협력과정 확대

2023년 15개 캠퍼스로 확대, 기술트렌드 반영한 90개 과정에서 2,304명 교육

청년취업사관학교을 졸업한 친구로부터 매칭데이, 시설, 여러 가지 취업을 위한 지원 후기를 듣고 클라우드 과정을 선택해서 수강했다. 밀도가 높은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과정이 힘들기도 했지만, 내가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케어해주시는 잡코디 매니저님과 새싹에서 만난 같은 반 동기들 덕분에 자신감을 잃지 않고,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다.

- 영등포캠퍼스 백엔드 구축을 위한 클라우드 기술 활용 개발자 과정(JAVA 기반) 수료생 -

서울시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졸업(수료)생 중 1,527번째 취업자가 탄생했다. 올해 본격적으로 도입한 '기업형 주문과정'의 효과가 컸는데, 기업이 원하는 교육과정을 기획해 교육생을 채용까지 연계되는 방식으로 기업, 교육생 양쪽 모두의 만족도가 높아 2024년에는 기업과의 협력 과정을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연계형 과정은 교육생에게는 폭넓은 취업기회를, 기업에는 인재 양성과 채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 시범 운영 2023년도에 본격 도입됐다. 8개 캠퍼스, 14개 과정, 403명 규모로 운영했다. 신한금융투자증권, 현대IT&E, SK쉴더스 등 대기업을 비롯한 다수의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등이 참여했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2030 청년 구직자들에게 디지털 실무교육과 취.창업 연계를 지원해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 정책이다. 기업이 원하는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생들이 일하고 싶은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오 시장은 청년취업사관학교 동대문캠퍼스 개관식에서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소프트웨어(SW) 개발을 전공하지 않은 청년의 취업을 지원하고, 미스매칭을 중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시작했다."라며, "2천300여 명의 학생이 교육을 수료하고, 수강생의 70% 이상이 취업했다니 바라고 기다리던 변화가 시작된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그간 수준 높은 실무교육과 촘촘한 취업프로그램을 통해 지금까지 취업률은 74.5%(누적)로 집계된다. 시는 이러한 성과의 배경으로 ▲ 강도 높은 교육 일정 ▲ 수준 높은 강사진 ▲ 기술 트렌드를 반영한 교육과목 ▲ 기업과 교육생을 연계하는 일자리 매칭데이 운영 ▲ 자기소개서, 모의면접 등 맞춤 취업 지원 등을 손꼽는다. 그리고 교육시작부터 취업까지, 현장에서 교육생 목소리를 듣고 진행한 세세한 밀착케어도 빠트릴 수 없다.

모든 교육과정은 무료로 운영되며, 청년들이 교육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점심 식사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챗GPT 등 급변하는 기술변화를 신속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는데. 2021년에 25개에 불과했던 교육과정은 매년 증가해 2023년에는 15개 청년취업사관학교에서 총 90개의 교육과정(2,304명 교육)으로 확대됐다.

서울시는 청년들이 원하는 곳에서 필요한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2025년까지 25개 자치구마다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조성할 계획이다.

불과 2년 만에 15개의 청년취업사관학교가 조성됐고, 특히 올해는 동대문, 성북, 도봉 등 8개 캠퍼스가 잇달아 개관해 90개 교육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인재육성(SW)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SW) 개발자 양성과정(빅데이터,인공지능 등) ▲ 문과생 등 비개발직군을 위한 디지털전환 교육과정(디지털 마케팅, 서비스기획 등)을 나누어 운영해 청년들이 취업을 원하는 분야별 맞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소프트웨어(SW) 교육과정은 개발자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웹, ▲앱,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금융기술(핀테크), ▲사물인터넷(IoT)/로봇 분야 47개과정 1,053명이 참여했다.

문과생 등을 비롯한 비개발직군을 겨냥한 디지털 전환(DT) 교육과정은 ▲서비스기획, ▲퍼블리싱, ▲UX/UI 디자인, ▲ 디지털마케팅(이커머스)등 4대 교육과정 분야외 ▲지역산업특화과정, ▲신기술 교육분야 43개 과정에 1,251명이 참여했다.

12월에만 3곳의 자치구에 청년취업사관학교가 새롭게 문을 열었다. 동대문 캠퍼스는 지역 산업인 뷰티,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기획자 과정 등을 운영하고, 성북 캠퍼스는 디지털헬스케어 특화과정을 운영한다. 새싹 캠퍼스 중 규모가 가장 큰 도봉 캠퍼스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SW) 과정과 비전공생을 위한 디지털전환과정(DT)을 함께 운영한다.

동대문 캠퍼스(동대문구 용두동)는 지역 산업인 ▴뷰티산업 디지털마케터,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기획자와 챗지피티(챗GPT)▴프롬프트 엔지니어를 양성한다.

BT-IT 융합센터(성북구 하월곡동)에 청년취업사관학교 성북캠퍼스(14호)에서는 성북 지역산업 특성과 융합기술을 반영한 '디지털 헬스케어' 특화분야 2개 과정에, 60명을 교육한다.

도봉캠퍼스(15호)는 씨드큐브 창동 7층(도봉구 창동)에 문을 열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SW) 과정과 비전공생을 위한 디지털전환과정(DT)이 동시에 진행되는 종합형 캠퍼스로, 새싹 캠퍼스 중 규모가 가장 크다. 매년 239명의 인재를 배출할 계획이다.

특히, 도봉 캠퍼스에는 '아기 공룡 둘리' 고향인 도봉의 지역산업 특징을 반영한 ▲웹툰 제작사 취업과정, 기업연계형으로 ▲소프트웨어(SW) 인공지능(AI) 강사 양성과정을 새롭게 도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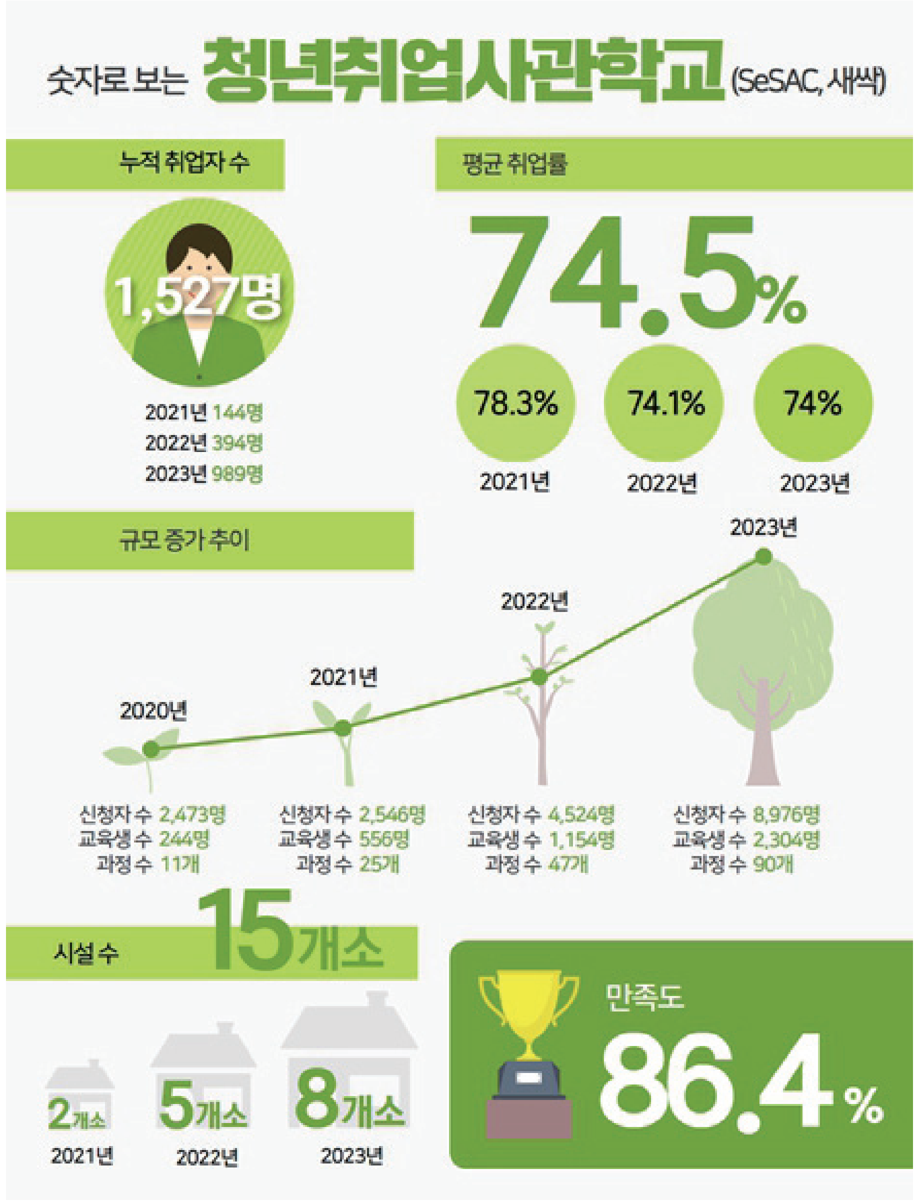
도봉캠퍼스 소프트웨어 개발자 과정은 인공지능(AI), 웹개발, 금융기술(핀테크), AR/VR, 클라우드 분야 등이 있다.

2024년도에는 캠퍼스 5개소가 개관을 앞두고 있다. 총 20개 캠퍼스로 확대되는 청년취업사관학교에서는 2024년 한 해 동안 디지털 3천 명이 교육을 받게 된다. 2025년에는 모든 자치구에 1개 청년취업사관학교가 자리를 잡게 된다.

2024년에는 강남(5월)을 시작으로 강북(7월), 관악(8월), 노원(10월), 은평(12월) 순차적으로 개관한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청년취업사관학교의 실무 맞춤형 취업교육이 졸업(수료)생들이 원하는 기업과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취업'으로 연결되고 있다."며, "2024년도에는 확대된 시설만큼 청년의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역사를 품은 도시 미래를 담는 경주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된 도시 경주
미래원전, 신해양 르네상스 도약!

2025년 APEC 정상회의

지역균형발전
APEC 소규모 성장가치 실현
최적도시 경주

생산 유발 **2조 원**
부가가치 유발
5536억 원

SMR(소형모듈원자로) 국가산단 2030년 완공

문무대왕과학연구소 등
풍부한 원전 인프라와 함께
글로벌 원자력 산업거점 도약

경제효과
7조8082억 원
고용효과
2만8178명

동남권 해양레저 관광 거점사업

해양레저 지원센터 · 레저체험센터
용오름길 · 고라섬풀장 · 나정 수상 레저 체험장
문무대왕 해양조각공원 · 만파식적 공원

감포 나정고운모래 해역
7만7820㎡
총사업비 **490억 원**
신라오션킹덤 조성

Golden City Gyeongju | 경주시